"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8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24일(음력 8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지역 불교대학 운영꿈 디지털대학 대안 '부상'

코로나19 후 대면교육 한계 봉착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급물살
2022년 내포불교대학 시작으로
7개 불교대학서 150명 수학 중
월 1회 이상 오프라인 수업진행
소속감 증장 위한 서비스 제공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 부설기관인 디지털불교대학이 지방 인구 감소와 교통 불편으로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사찰 불교대학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전통적인 대면 교육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도교육 방안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이후 지역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면 교육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불교대학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사찰 현장과 연계해 수행·봉사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찰과 신도 모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다.

디지털불교대학은 2005년 조계종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으로 개원해 2010년 사이버불교대학과 통합, 온라인 불교교육기관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초심자부터 포교사까지 불교에 대한 깊은 공부를 원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장경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불교대학을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은 내포불교대학(학장 정범 스님)으로 코로나19 이후 신도교육을 고민하다 2022년 디지털불교대학을 활용해 불교대학을 가동했다. 신도들은 학기 동안 정해진 커리큘럼 대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심을 다졌다.

원활한 진행이 확인되자 이후 동참 불교대학이 늘어 났다. 현재 내포불교대학,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청평사 불교대학, 동구사 불교대학, 신원사 불교대학, 원주불교대학, 행복한절 등 7군데서 150여명이 디지털 불교대학을 통해 수학하고 있다.

내포불교대학의 디지털교육을 주도한 정범 스님은 "교통 불편을 토로하는 신도뿐 아니라 교수사 수급의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됐다"면서 "다만 공간을 통한 신행활동을 놓칠 수 없기에 온·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스님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사찰에 모여 교육을 점검하고 행사 참여와 봉사를 통해 소속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은 디지털불교대학을 활용한 불교대학 중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3년 전 디지털불교대학을 도입해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진불선원 선불교대학은 일주일 두 번의 수업 중 하루는 온라인, 하루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진불선원 관계자는 "신도 연령대가 높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 번 돌려보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면서 "과목을 개별 신청해 다시 보기 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계종 포교부에 따르면 디지털불교대학 활용으로 만족감을 표하는 불교대학이 늘어나자 제휴를 문의하는 사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나주 불회사 등 두 곳이 최근 인가를 받아 실무협의 중이고 2곳은 상담을 진행 중이다.

나주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은 "교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불교대학을 개설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불교대학 개설로 지역 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9월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2025 Young Camp: 주인공'에서 동국대 재학생 3500여 명이 수계하고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3500 동국인 '불자' 되다

동국대 건학위 9월 16일 '영캠프'
'청년 전법' 원력으로 2회째 열려
1, 2차 신청 매진…인기 '실감'
3500여 동국대 재학생 동시수계
119회 지역불자육성장학 수여도

세찬 가을비도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하는 동국인들의 불심(佛心)을 막을 수 없었다. 3500 동국대 재학생들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청년 불자로 거듭났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윤재웅)는 9월 1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5 Young Camp(이하 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했다.

'영캠프'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가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전법 축제를 만들어가는 '영캠프'는 올해도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청년불자 씨앗'을 심겠다는 목표로 행사를 기획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전법 축제인 만큼 재학생들의 관심도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지난 9월 4일 오후 7시에 진행된 참가 신청은 시작 2분 만에 마감됐고, 성원에 힘입어 진행된 500석 추가 신청도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행사 당일에도 시작 1시간 전부터 장충체육관이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영캠프의 하이라이트는 3500 재학생들이 참여한 수계법회였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3사7증엔 원명·종호·진화·성화·덕조·도림 스님 등 법인 이사·감사 스님 등이 참여했다.

법상에 오른 돈관 스님은 "동국 주인공 3500명이 강림하는 순간이다. 이를 굳이 표현한다면 '감동' 두 글자 밖에 없다"고 술회하고 오계의 중요성을 대중에 설했다. 돈관 스님은 "수계는 자기를 찾아가는 길잡이이자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신과 부처님과의 약속"라면서 "어두운 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며,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108명 스님들의 연비의식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스님들은 3500여 학생들에게 연비를 대신에 염주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수계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로 수계증을 받은 주현석 학생기획위원단장은 "개인적으로 '보살'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데 오늘 수계한 모든 학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보살도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학생기획위원단 부단장도 "오늘의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청년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계식 후에는 제119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AI그림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5 현대불교신문 AI그림 공모전' 수상자가 선정됐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8월 4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AI그림 공모전'에는 총 207명이 응모해 대상에 김하림 씨의 '전화(戰火)에 피어난 연화-무언(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최우수상에 송찬호 씨의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과 김다현 씨의 '멈춤의 공(空)간'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전수빈 '폐허 속의 자비' △박영규 'UN 평화대사 부처님'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임우진 '새로운 형태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정현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양(供養)' △조이환 '자비의 등불, 얼음 위에 피다' △김기현 '퍼스널컬러를 찾아주시는 부처님' △윤민지 '연기의 클럽 (Buddha Bounce)' △송우석 'ZEN 2.0' △조환희 '셰프 부처님-2600년 경력의 요리사' △김재원 '케이팝 무대 위에 선 부처님' △김진민 '부처님의 발걸음' △임병진 '부처의 꽃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종래 UNIST 총장, 유주연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장, 박훈 현대불교신문 미디어위원, 양경수 웹툰 작가,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가 참여했다.

선정작은 10월 1일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10월 8일자 현대불교신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종책제안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는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가 되는 각종 종책을 만들어내는
총무원장 직속 기구입니다.
불교의 중흥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를 종책 개발의 초석으로 삼고자
〈종책제안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

공모 분야

구분	내용	시상내역
불교종책 분야	- 교육, 포교, 수행, 복지 등 전반적인 불교계 관련 종책 아이디어	최우수상 1명 (상금 500만원)
불교사회 분야	- 종단이 사회의 각 분야와 함께할 수 있는 관련 종책 아이디어	우수상 5명 (상금 각 200만원)
종단재정 분야	- 종단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승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책 아이디어	장려상 10명 (상금 각 50만원)
기타 분야	- 위의 3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종책 제안	

※ 시상 내역은 공모 접수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 불기2569(2025)년 10월 31일(금)까지
- 보내실 곳 : fourdeva@wehago.com
(※우편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
- 문의: fourdeva@wehago.com / 02-2011-1940

수상자 발표
- 11월 17일(월)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원고작성 요령
- 한글 워드프로세서 최소 A4 5장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유의사항
- 1쪽 상단에 반드시 제목, 성명(또는 법명), 제출 분야, 현재의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입해야 함.
(※위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반드시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야 함.
- 이미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처리하며, 시상 이후에 밝혀졌을 경우에는 상장과 상금을 회수함.
- 선정된 종책제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됨.

총림실사특위, 5대 총림 실태 재점검한다

9월 17일, 제6차 회의서 논의
"총림 제출 자료와 현실 차이 커"
일정 조율해 진행…간사 각진 스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안 스님, 이하 총림실사특위)가 1년 여 만에 총림 운영 현황을 다시 점검한다. 지난해 5월 진행한 각 총림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들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총림이 선교율을 겸비한 수행도량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총림실사특위는 9월 17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림 수행기관 실태조사 재검'을 논의했다.

위원장 재안 스님은 "특위가 각 총림 실사를 다녀온 지 1년 정도가 지난 만큼,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총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림실사특위 활동은 특정 총림을 해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 재안 스님은 "특위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총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림실사특위는 총무원 교육부로부터 △덕숭총림 수덕사 △해인총림 해인사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의 임회 구성 및 총림 내 승가대, 대학원의 학인과 교수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총림실사특위 위원 스님들은 각 총림이 교육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실사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암 스님은 "실사 현장에서는 총림 구성 요건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사찰에 상주하는 승가대학과 율원의 학인 스님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종단에서 총림의 학인스님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승가대학과 율원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제출되는 총림 입학 지원서를 특위 실사 과정에서도 제공해야 보다 투명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혜도 스님도 "제출 자료와 비교해 지난해 실사 결과에서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총림의 운영 실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총림 직제 구성의 미비점도 제기됐다. 성제 스님은 "범어사의 경우 수좌와 유나, 강주 모두 공석이다. 각 총림이 규정에 맞는 직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총림실사특위는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성원 스님의 총무원 문화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간사직에 각진 스님을 새롭게 선출했다.



조계사, 지역법회 14주년 기념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 봉행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스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9월 14일 지역법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는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주지 담화 스님 등 사중 스님들과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등 신도회 임원진, 서울 25개 구 및 근교 도시 총 32개 지역법회 소속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각 지역법회 임원들은 스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의(依), 식(食), 주(住), 약(藥)의 사사공양(四事供養)을 올렸다. 사진은 이승현 신도총회장이 진우 스님에게 승보공양을 올리는 모습.

김내영 기자

은해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세림·용주 스님 경선

선관위, 자격 '이상 없음'
선지 스님 후보직 사퇴
10월 2일, 보궐선거 실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세림·용주 스님의 경선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자 사퇴가 없으면 10월 2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선관위)는 9월 18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1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제10교구)'에 입후보한 덕사 주지 세림 스님과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후보 등록했던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은 이날 오전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관위는 9월 29일 회의에서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세림 스님은 불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세림 스님


용주 스님

용주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11년 통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거동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선거법 제13조 및 제 16조에 의해 선출되며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에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태성 스님과 간사 현담 스님, 위원 진산·혜민·탄정·혜광·유승 스님이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명상인류'를 위한 선명상 안내 가이드

KBS1TV 2부작 다큐 방영
'선명상' 마음 수행법 소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KBS1TV '다큐ON'의 '명상인류'에서 선명상 실천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BS

'명상'이 더 이상 특정 종교에 머물지 않고 전 인류적 흐름이 되고 있고, '선명상'이 그 흐름의 중심에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9월 13~14일 방영된 KBS1TV '다큐ON'의 '명상인류(책임프로듀서 박상욱)' 2부작은 현대인의 마음 수행법으로 주목받는 선명상의 원리와 깊이, 실천법을 조명했다.

1부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명상으로 삶을 건강하게 일구고 있는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는 곧 명상인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50년간 명상을 해온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 말하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명상은 '나'라는 존재의 키를 다시 잡아주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2년차 명상 고수 피아니스트 임현정, 종교학자 성해영 교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이제 막 명상에 입문한 가수 이승기의 인터뷰를 통해 명상의 놀라운 효과를 소개했다.

특히 선명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참선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마음 치유법임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국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평안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인들은 이제야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한국 K-선명상이 세계의 정신문명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멈추고, 보고, 사랑하라'에는 광우 스님과 배우 김지호, 방송인 곽정은·김대호가 강원도 정선으로 떠난 '4인4색 명상여행'이 담겼다. 광우 스님은 '멈춤과 비움, 내려놓음'이라는 선명상의 핵심 사상과 실천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은 참선과 화두의 의미를 설명했다.

'명상인류'는 KBS1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KBS 다큐 라이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연구소, '종책제안서 공모전' 개최

10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조계종이 종단 미래를 밝힐 중장기 비전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9월 17일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다지고자 '종책제안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종책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교육·포교·수행·복지 등 전반적으로 불교계와 관련된 '불교종책 분야' △종단이 사회의 각 분야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불교사회 분야' △종단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해 승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종단재정 분야' △그 외 자유로운 제안을 담을 수 있는 '기타 분야'로 나뉜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 이메일(fourdeva@wehago.com)로만 받는다.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기준 A4 5장 이상(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하면 된다. 1쪽 상단에는 반드시 제목과 성명(또는 법명), 제출 분야, 현재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다만 이미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책을 제출하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된다.

수상자는 11월 17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최우수상 1명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 5명에 각 100만원, 장려상 10명에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작의 지적재산권은 조계종에 귀속된다. 02-2011-1940 김내영 기자

2025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일시 2025. 9. 27. 토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10:00~10:20 개회식 — 사회: 심성학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세션 1 — 좌장: 박근영 한마음과학원 회원

10:30~11:30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
발표: 박진영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미국 / 토론: 청동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11:45~12:45 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白雲和尙(1298-1374)의 생애와 사상
발표: 야닉 브뤼느통 파리 시테 대학교 교수, 프랑스 / 토론: 혜유스님 한마음아카데미, 독일

세션 2 — 좌장: 김종훈 김종훈치과 원장

14:00~15:00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
발표: 원하이밍 인민대학교 교수, 중국 / 토론: 김재영 산동대학교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중국

15:00~15:50 오공(五共)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유도명상 프로그램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중심으로
발표: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16:00~16:30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 - 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에서
발표: 오영국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 토론: 양영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17:00 수행으로서의 축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한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발표: 박진영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 토론: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17:10~18:00 종합토론 — 좌장: 이화행 동명대학교 교수

18:00~18:20 폐회식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운사 복구 염원 3000 포교사 철야 정진

포교사단, 9월 13~14일 고운사 철야 '제21회 팔재계수계법회' 자광 대종사 지계 실천 당부 462명 신규 포교사 품수식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사 포교사 3000여 명이 폭우 속 철야 정진을 통해 지난 3월 산불로 전소된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정법수호를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 3000여 명이 폭우 속 철야 정진을 통해 지난 3월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정법수호를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9월 13~14일 의성 고운사에서 '제21회 팔재계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신규 포교사 462명을 포함한 전국에서 결집한 포교사 3000여 명은 부처님 앞에서 계율을 지켜 불제자로서 청정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화마가 할퀴고 간 고운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이번 팔재계수계대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전계대화상으로 법상에 올랐다. 먼저 팔재계 의미를 설한 자광 대종사는 "하룻밤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계를 지키며 마음을 밝혀야 한다"며 "부처님은 자비로 이끄는 스승이며, 청정한 스님들은 인천의 복전이며, 보시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치사에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법석에서 수행과 중생 구제에 진력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곳곳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0회 일반 포교사 품수식' 에서는 462명의 신규 포교사가 품수증과 단복을 받았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3000여 포교사를 대표해 복원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발원하며 단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선명상 보급자이자 전법가로서 역할을 강조한 김영석 단장은 포교사들에게 "탈종교화 시대, 불자와 출가자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단을 외호하며 종책 사업에 기여하자"고 했다.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사단 연수특강 일환으로 마련된 특별강연에서 "포교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한국불교 중흥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사회 곳곳에서 지역단별로 활발한 포교를 펼쳐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 나가자"고 했다.

13일 오후 6시 시작된 팔재계법회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6시까지 철야 정진으로 이어졌다. 포교사들은 고운사 화마 피해 극복을 기원하는 발원지를 작성하고 2분 선명상, 대념처경 독송 등을 이어가며 정진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참가자 대부분은 밤을 지새며 정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제30회 일반 포교사 품수식'도 열려 462명의 신규 포교사가 품수증과 단복을 받고 정법수호를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9월 15일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를 입재했다.

비구니회 하반기 수행결사 입재

9월 15일, 법룡사서 입재식
서광 스님 법사로 12회 강의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함께 정진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9월 1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입재했다.

이번 수행결사에서는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대승기신론과 유식 30송에 담긴 핵심 명상수행'을 12회에 걸쳐 강의한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6회는 '유식 30송과 명상'을, 6회는 '대승기신론과 명상'을 주제로 공부한다.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증 2급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입재식에 참가한 대중들은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문'을 낭독하며 "부처님 길을 따르는 수행자이자 청정승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의 간절한 신심과 발원은 후대에 이르러 또 다른 결사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정승가공동체 결사의 주인공으로서 회향하는 날까지 함께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광 스님은 대승기신론과 유식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며 나와 나의 삶, 그리고 관계에 대해 성찰할 것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양력 정기법회' 주제 포교 종책 연찬회

조계종, 9월 24일 아미드호텔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6월 예정됐던 제85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9월 24일로 변경해 개최한다. 오후 2시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법회 활성화 방안-양력 정기법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첫 발제는 김포 붓다정사 주지 지월 스님이 '법회의 중요성과 양력 법회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 박영동 전 영석고 교법사가 맡는다.

두 번째는 영천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이 '법회 사례와 현대적 법회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전 월간 '설법' 발행인 동출 스님, 김관태 산림연구소장이 나선다.

임은호 기자

월정사 전나무숲서 진신사리 이운 삼보일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10월 18일 삼보일배 봉행
1500명 동참…1km 행렬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삼보일배로 순례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진신사리 이운 삼보일배'를 봉행한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10월 17~19일 진행되는 월정사 문화축전의 일환이다.

'하심의 미학과 가피의 추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삼보일배는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론 화합과 불보살의 가피를 기원하는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 세조와 의숙 공주의 원으로 국보인 상원사 문수동자상에 봉안됐다가 현재 월정사성보박물관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월정사 측은 연(輦)에 진신사리와 〈금강경〉을 함께 모셔 경내 마련하는 특설무대로 이운, 참가자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측은 이번 삼보일배에 불자를 비롯한 시민 150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렬 중간 중간 인솔 스님 50여 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삼보일배는 약 1km 진행되며,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인 '월정사 탑돌이'를 함께하며 마무리된다. 동참은 월정사 기도신행국으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접수 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겐 무릎 보호대와 저녁공양이 제공된다.

삼보일배를 이끄는 월정사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풍광의 최고 사찰림"이라며 "천혜의 풍광에서 잘 정비된 황톳길에 스스로를 하심으로 내려놓고 조선 최고의 불사리를 이운하며 진행되는 대규모 삼보일배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피어나는 공덕의 복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는 한암 스님이 불교 발전을 서원하며 1931년 발족한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양회(봉찬회)'에서 시작됐다. 매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신행결사체로, 2023년 3월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월정사에 모여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참인원이 8000세대에 달하며 매달 전국에서 평균 2500명 불자가 월정사에 모여 철야정진에 참여하고 있다. 033-339-6791

임은호 기자

사노위,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 추모

9월 15일, MBC 앞 추모문화제
"노동자 차별 해소 방송국 의무"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 9월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MBC 고 오요안나 1주기 추모위원회가 마련한 추모제에 동참,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유서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오 씨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안형준 MBC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기상캐스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MBC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에 대해 유족과 단체들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모문화제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선우 스님은 "방송의 공공성,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방송국 내 노동자들에 대한 지독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MBC 사장에게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MBC가 되기 위한 길은 내부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31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 (하반기분 12월 지원 예정)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보험료 미지원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님
   ※ 신규지원 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9(2025)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유 정

손끝으로 읽은 시…아나율들의 낭송회

14일, 광림사 연화원 일요법회서
법산 스님 점자 시집 낭송회 개최
"무관심·제작비 등 어려움 있지만
경전·문학 등 점자 불서 계속 제작"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9월 14일 광림사에서 법산 스님의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 점자판 및 오디오북 출간을 기념하는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박인수 불자가 시를 낭송하고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사진 왼쪽)이 수어로 전달하고 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 /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 / 보아도 안 보이는 것 / 들어도 알 수 없는 것 / 밤새 걸어도 발은 그대로 / 종일 들어도 아는 것 없네 / 모두가 환상인 것을 / 착상 분별 버리지 못하네."

–법산 스님의 시 '보이는 것' 중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점자를 짚으며 나지막이 낭송하는 시(詩)가 법당을 가득 채운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 광림사 주지)이 매달 한 차례 봉행하는 수어법회가 9월 14일에는 시 낭송회로 진행됐다. 연화원 법사 법산 스님(전 조계종 법계위원장)이 최근 펴낸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의 점자판과 오디오북 발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0여 년간 연화원의 노력 덕분에 점자 불교 법요집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점자도서 중 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일반 도서와 달리 판형이 크고 두꺼워 제작비가 2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성 스님은 "흔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오디오북만 있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은 원하는 때 언제든, 자신만의 속도에 따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매체"라며 "불서뿐만 아니라 문학책에 대한 수요도 높다. 지난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점자책으로 제작한 데 이어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비용 문제로 선뜻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는 어디로 가나〉는 시집이라 점자 제작과 낭송 녹음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해성 스님의 설명이다.

법산 스님은 2011년부터 연화원 장애인 법회에 참석해 법문하고 점자 불서 발간을 후원하는 등 장애인 불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 연화원은 지난 2020년 법산 스님의 첫 시집 〈나는 누구인가〉의 점자책도 출간한 바 있다.

시 낭송회에 앞서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은 "서점에는 수없이 많은 불서가 있지만, 누가 읽어 주거나 점자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그런데 법산 스님께서 써 주신 좋은 시를 해성 스님께서 점자판으로 만들어 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강태봉 회장이 '낙엽', 김재형 불자가 '나도 할 수 있어요', 김종수 불자가 '보이는 것', 박인수 불자가 '딱새', 이은영 불자가 '청산유수', 조주영 불자가 '나는 어디로 가지', 유정숙 불자가 '제비꽃'을 점자책을 짚거나 암송해 정성껏 낭송했다.

시 낭송 후 법문에 나선 법산 스님은 "설법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 여러분의 시력이나 청력은 잠시 멈춰 있지만 인식은 밝게 빛나 시 한 편으로도 다양한 감정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 감미롭고 감동적인 시 낭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법을 위해 애쓰는 해성 스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모여 불법과 마음을 나누는 이 자리가 곧 극락세계"라고 격려했다.

법회 후 점자 시집 출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고, 법산 스님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태국·호주에 전한 韓사찰음식 맛·철학

문화사업단, 방콕 · 시드니서 사찰음식 강의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 일환
사찰음식 장인 동화 스님 강사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태국과 호주에 한국 사찰음식의 맛과 철학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주태국 한국문화원(원장 이선주)과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원장 윤선민)에서 한국 사찰음식 강의를 성료했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진행된 이번 강의는 사찰음식 장인 동화 스님이 직접 강연과 시연을 이끌며 현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2025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투어링 케이-아츠'는 국내 우수한 문화예술단체가 해외 공연, 전시, 강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여러 나라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국가인 태국에서는 9월 5일 방콕 수언두싯대학교(Suan Dusit University) 조리학과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특강이 열렸다. 수언두싯대학교는 1930년대 여성교육을 목표로 태국 최초로 조리학과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참가자들은 동화 스님이 직접 만든 1년·3년·5년 간장과 80년 씨간장이 들어간 10년 숙성 간장을 비교 시식하며 발효의 깊은 맛을 체험했다. 또한 '버섯들깨수제비'와 '장떡'을 직접 만들어 보며 사찰음식 조리법과 발효 장류 활용법을 배웠다.

9월 6일에는 주태국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사전 신청자 70명을 대상으로 '버섯밥'과 '고추소박이' 시연·시식에 15명이 참여한 실습 강의가 이어졌다. 현지 언론도 현장을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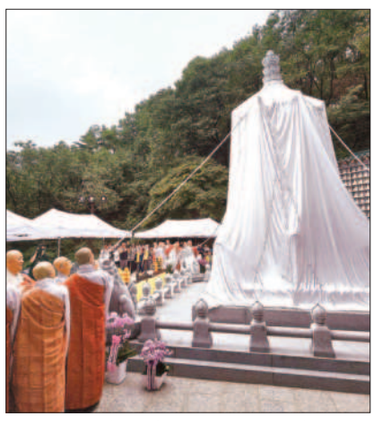
두 번째 국가인 호주에서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총 4회의 사찰음식 강의가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120명이 참가한 강의에는 일반 참가자뿐 아니라 시드니 주재 외교단, 호주의 저명한 TV 셰프 겸 식문화 전문가 린디 밀란(Lyndey Milan), 시드니 모닝 헤럴드 미식 전문 기자 데이빗 매튜(David Matthews) 등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함께해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앞으로도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한국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의 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도선사, 사리탑 중수 불사 회향…"대중 화합 계기"

9월 13일, 청담 스님 사리탑 제막
김학규 신도회장 등 5명에 감사패



서울 도선사는 9월 13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 및 사리탑 주변 정비불사 회향식' 을 거행했다.

도선사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시작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중수 불사가 2년 6개월여 만에 원만 회향했다. 도선사는 청담 대종사의 유훈을 이어 강북불교를 대표하는 포교전법도량이자 호국도량으로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9월 13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 및 사리탑 주변 정비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과 청담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차기 주지 도심 스님, 청담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담 대종사 사리탑은 1974년 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건립된 후 50여 년 만에 중수됐다. 오랜 세월 풍화로 석물 노후와 주변 지반 침하가 발생해 안전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가 불가피했다. 이에 도선사는 2023년 3월부터 문중회의를 거쳐 기존 사리탑을 해체·보수해 새롭게 조성에 나섰고, 올해 5월 31일 사리탑을 재건 후 청담 대종사 사리를 봉안했다. 이어 석축 및 배수시설 등 주변 정비까지 마무리해 이날 불사를 최종 회향했다.

주지 태원 스님은 "14년 전 청담 대종사 40주기 다례에서 석상은 퇴색하고 석물은 침하해 원형이 손상되고 있는 모습을 봤다. 당시 10년 안에 도선사 주지로 와 사리탑을 다시 모시겠다고 서원했다"고 회고하며 "끝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의 회향 법석을 마련하게 된 기쁜 마음은 모두 도선사를 사랑하는 문중 대덕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몸에는 생로병사를, 물질적 세계에는 석주괴공을, 마음에는 생주이멸의 참다운 이치로 참회정진해 발심하고, 마음을 밝히는 데 매진하겠다"며 "이번 불사 공덕이 도선사의 끝없는 발전과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한 불국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담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은 "오늘 사리탑 성역화 불사 회향을 계기로 대중이 화합해 한마음으로 청담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주지 태원 스님은 청담 대종사 사리탑 및 주변 정비불사의 회향에 남다른 신심과 열정으로 물심양면 도움을 준 김학규 신도회장, 김장연 강북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주임, 성윤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과장, 김다경 ㈜다경 대표,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제22회 대원상 후보자 공모

출가·재가부문 등…9월 30일까지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중흥의 기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22회 대원상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2003년 제정돼 올해 22회째를 맞는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 △특별 정진상(조계종 소속 해외 유학승 2명)으로 나눠 공모한다.

출가 부문은 사회활동·강연(설법)·콘텐츠 제작·저술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이나 스님이 중심의 단체·기관, 재가 부문은 다방면에서 효율적 포교를 전개한 재가자 또는 재가자 중심의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 및 기관 응모자는 설립 3년 이상, 회원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젊은 승가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정진상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올해 유학 예정인 스님과 해외 명상센터에서 1년 이상 수행 중인 조계종 소속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특별상에 1500만원, 장려상에 10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서류 제출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마감은 9월 30일까지다. 02-719-2606

신중일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상

9월 5일 '2025년 서울시민 생명사랑의 날' 기념식서 수상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이 9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민 생명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상을 수상했다.〈사진〉



이번 기념식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관하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주최해 마련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015년부터 종교계 자살예방사업 '살사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살사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종교 기반 자살예방사업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살 유가족을 위한 위로법회, 템플스테이, 상담·명상 결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심리적 위기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수상 소감에서 "귀한 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함께한 '살사프로젝트' 참여 단체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앞으로도 명상과 상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치유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 확대 나선다

서울시·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함께
대우건설, 4억 5000만원 후원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가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월 16일 센터 3층 TOP 작은공연장에서 서울특별시, 대우건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무료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간, 무료급식 대기 인원을 해소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무료급식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무료급식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추천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대우건설은 총 4억 5000만원(연간 1억 5000만원) 후원 및 임직원 정기 봉사활동을 병행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를 통해 무료급식 상담·신청을 주관한다.

해당 사업은 △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 1인가구 증가 △탑골공원 민간급식 대기 줄 문제 등 사회적 이슈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 확대 필요성에 대응해 마련됐다.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영양불균형 해소 △급식 대기 인원 분산을 통한 안전한 급식 환경 마련 △식사를 매개로 한 사회적 교류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 등 어르신 복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2-6220-8668

임은호 기자

BTS RM도 찾은 직지사서 '짝꿍' 만나 보자

10월 24~25일 '나는 절로'
직지사 편 9월 24일까지 접수

날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나는 절로'가 10월에는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10월 24~25일 이틀에 걸쳐 '나는 절로, 직자사'를 진행한다.

직지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천년고찰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에 집중해 온 도량이다. 특히 세계적인 가수 BTS RM이 찾아 몸과 마음을 쉬고 간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는 절로, 직지사'는 황악산과 직지사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직지사 앞 사명대사공원에서 다양한 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사명대사공원은 인기프로그램 '나는 솔로'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2030 미혼남녀는 종교와 관계없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9월 17~24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역대 최다 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나는 절로, 신흥사'는 총 12쌍 중 6커플 성사로 마무리됐다. 강원관광재단과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나는 절로, 신흥사'는 속초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카페에서의 1:1 로테이션 차담, 속초 명소인 관광수산시장 탐방 데이트는 물론 천년고찰 신흥사 참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감성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청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02-6334-2217

임은호 기자



“함께 걷고 줍고 나누며 생명 소중함 알려요”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8.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 현장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3일 서울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이날 걷기명상에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 국회의원과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이 일면 스님과 만해광장을 떠나 남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존중과 나눔 정신으로 건강한 세상을 염원하는 걷기대회가 서울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열렸다. 특히 걸으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함께 진행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9월 13일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매년 걷기대회를 개최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년 전부터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도 함께 진행하며 생명나눔과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전하고 있다.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과 1000여 명의 동참자들은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 4km를 걷기명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고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본격적인 걷기명상에 앞서 일면 스님은 “2008년부터 부처님 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생명존중 걷기대회가 올해로 16회를 맞게 됐다”며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걷기명상을 넘어 서로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잇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생명나눔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생명존중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오늘의 걷기명상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고, 플러깅은 환경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가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살 예방, 청소년 보호, 정신건강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13일 남산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
1000여 명 동참해 남산 산책로 걸어
일면 스님 “서로에게 따뜻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생명 살리는 희망”

김병주 의원(남양주시을)은 축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주 귀한 행동”이라면서 “걷기명상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최근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각박해진 것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며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힘찬 구령과 함께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이들은 남산을 걸으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중간 중간 발견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도 실천했다.

걷기명상&플로깅 후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만해광장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타로, 양말목 키링,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등을 체험하며 화창한 주말을 즐겼다. 동국대일산병원에서는 응급부스를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이날 걷기명상&플로깅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이사 명신 스님(통도사 수좌), 불암사 주지 법정 스님, 묘적사 주지 법륜 스님, 불일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국회 정각회장 이헌승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마하무용단원, 연화원 회원, 대불련,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 1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동참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00여 명의 동참자들은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 4km를 걷기명상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마하무용단의 축하공연이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1000여 명의 동참자들은 힘찬 구령과 함께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선명상 강좌·체험으로 마음 치유를”

창원 안국사, 선명상 ‘사유의 방’ 개원

9월 13일, 명상 수행 공간
총 20회 걸쳐 선명상 강좌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명상실 ‘사유의 방’ 내부 모습.



창원 안국사가 ‘사유의 방’ 개원식을 기념해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 안국사(주지 영산 스님)가 9월 13일 불교대학 강당과 선명상실 ‘사유의 방’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무진선원 담화림 스님, 김종양 국회의원, 안재문 유마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모신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 착안해 조성됐다. 선명상 강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수행·문화공간이다.

주지 영산 스님은 “창원에 온 지 6개월 만에 오늘의 불사를 봉행하게 됐다”며 “3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반가사유상의 감동이 오늘 선명상실로 이어졌다. 신도들과 후원자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선명상실이 현대인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주는 공간이자, 스스로 구원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신임 주지 스님이 포교를 원력으로 세우고 불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단순한 도량의 확장이 아니라 창원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안국사가 거점 도량으로 발전해 부처님의 본뜻을 잘 살리고 종단과 지역 사회의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오늘의 주인은 영산 스님과 신도들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사유의 방’에 모셔진 미륵반가사유상”이라며 “태자 사유상이 자기 고민을 상징한다면, 미륵 사유상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도량에서 신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대중을 향한 자비심으로 회향해야 한다. 그것이 선명상실의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은 “창원에는 이미 정법사 광우 스님이 도심 포교를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산 스님이 함께 원력을 세우며 창원 불교가 한국불교의 심장으로 도약하리라 믿는다”며 “저 역시 힘이 닿는 대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양 국회의원은 “‘사유의 방’에 가장 큰 손님이 돼야 할 사람은 정치인”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부터 이 공간에 와서 그런 마음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특강에서 “선수행은 단순히 안정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감각을 이해하고 의식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훈련”이라며 꾸준한 수행을 역설했다.

안국사는 9월 13일부터 ‘사유의 방’에서 매주 토요일 총 20회에 걸쳐 선명상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 천성산, 원효 사상 발현처 재조명

양산문화원, 9월 18일 학술대회
‘원효, 화쟁의 길을 열다’ 주제로



양산 천성산이 원효 스님이 자신의 사상을 전개·발현한 역사적 현장으로 재조명됐다.

양산문화원은 9월 18일 양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원효, 화쟁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천성산을 원효 스님의 전법과 설화가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조명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홍무흠 원효불교문화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천성산, 원효 화쟁의 길을 열다’ 주제 발표에서 “천성산은 원효의 전법 활동이 펼쳐진 역사적 현장이자 화쟁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효 사상의 핵심인 일심(一心)·화쟁(和諍)·무애(無碍)를 설명하며 “해골물 깨달음을 통해 드러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음을 일깨운다. 원효 사상을 오늘날 사회적 갈등 해결의 지혜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양산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원효의 전법 활동과 천성산 화엄벌’ 발표에서 원효가 천성산 화엄벌에서 1000명의 제자에게 〈화엄경〉을 강의했다는 전승을 소개하며 “천성산은 지붕 없는 원효의 박물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천성산에는 원효의 발자취와 설화,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산 자체가 곧 살아 있는 기록물”이라며 “자연경관을 넘어 원효의 화쟁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학문적·문화적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윤 인하대 교수는 ‘원효 오도처 – 그 문헌적 증거와 역사적 상상력’에서 원효의 깨달음 장소를 경기도 화성 당성(唐城)으로 새롭게 지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 기록과 신라·당 교류의 역사적 배경,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화성 당성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용궁사, 기장군에 자비나눔

장학금 1천만원 · 백미 5천㎏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가 9월 17일 기장군청(군수 정종복)에서 한가위를 맞아 장학금과 백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장학금 1000만원과 백미 10kg 500포대다.

이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고등학생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된다. 덕림 스님은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사찰음식 전문가 과정 첫걸음

초 · 중 · 고급 1년 커리큘럼
1기 과정에 총 24명 등록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가 사찰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과정을 신설하고 첫걸음을 내딛었다.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는 9월 11일 선문화관 2층 연구소에서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사진〉 오리엔테이션에는 소장 정오 스님과 부소장 서연 스님, 장도석 자문위원, 심정란·김경숙 강사 및 수강생이 함께 자리했다.

정오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일환”이라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것이 곧 큰 공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년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디서든 자신 있게 사찰음식을 전할 수 있는 1기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연구소는 범어사 내림음식을 비롯한 전통 사찰음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첫 수업은 심정란 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감자 함지쌈, 시금치 은행 잣죽, 감태연근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8명의 사찰음식 전문 강사진이 참여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죽순채, 방아장떡, 느티떡 등 범어사 전통 내림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사찰음식을 실습한다.

이번 전문자격증반은 초급 3개월·중급 3개월·고급 6개월로 운영되는 1년 과정이다. 현재 연구소는 민간자격증 인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동국대 사찰음식연구소와 연계해 2학년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수료 후에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달 한 차례 연구과정을 마련해 졸업생들이 실제 배운 내용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1기 과정은 오전반 12명, 오후반 12명 등 총 24명이 선착순으로 등록해 마감됐다. 연구소는 초급 과정을 마친 뒤 2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경찰청, 성문 스님 등 5명에 감사장


성문 스님 자륜 스님 이도경 지사장 이상훈 고문 정분남 회장

10월 21일 경찰청서 수여식
부산경찰청 · 사상경찰청 감사장
이도경 본사 부산지사장 수상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이 경찰관의 신행활동을 돕고 지역 봉사에 앞장서 온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부산경찰서는 △성문 스님(선광사 주지, 사상경찰서 경승실장) △자륜 스님(낙은사 주지, 경승 사무국장) △이상훈 부산경찰불자회 고문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등 5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장 감사장은 성문 스님과 이도경 지사장이, 부산사상경찰서장 감사장은 자륜 스님, 이상훈 고문, 정분남 회장이 각각 수상한다.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은 “평소 경찰 활동을 널리 알리고 불교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찰과 불교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사회 안정과 공동체 화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여식은 오는 10월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제8회 연수교육 성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스님)은 9월 7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총본산 동명사에서 제8회 종단 연수교육을 성료하였다.

이날 종정 법운 스님은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화두에 임해야 한다”며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면 세상에서 부질없이 머물다 가는 것이 되니 용맹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법문을 내렸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佛法 의지해 정진”…수덕사 선출가학교 입재

9월 12일 대웅전서 입재식
1기 출가학교에 13명 입교
열흘간 출가생활 체험 진행
권역별 출가학교 ‘첫 결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는 9월 12일 대웅전에서 제1기 선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선출가학교에는 남행자 6명, 여행자 7명이 입교했다.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만공 스님의 참선수행도량에서 열흘간 출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선(禪)출가학교’가 문을 열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9월 12일 대웅전에서 제1기 선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했다. 선출가학교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행자 6명과 여행자 7명이 입교했다. 고불식에 앞서 심우당에서 열린 삭발 의식에서는 네 명의 행자가 삭발에 동참했고, 다른 행자들은 부분 삭발을 하며 초발심을 새겼다.

고불식에서 행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열흘간의 출가살이가 쉽지 않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며 “스스로를 등불 삼아 정진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반드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가수행의 힘을 길러 평생의 자산으로 삼고, 나아가 사회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선출가학교는 템플스테이가 아닌 실제 행자 생활을 온전히 체험하는 도량”이라며 “예불과 발우공양, 울력과 참선, 간경과 염불의 일상은 수행자의 삶이 얼마나 장엄하고 자유로운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흘간의 정진이 번뇌를 이기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별위원장 정범 스님이 청규를 시달하자 행자들은 청규를 독송하며 수행 규범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전주에서 온 유동섭(65) 행자는 “교직에서 정년 퇴임하고 경허·만공 스님의 선맥이 살아 있는 도량에서 행자복을 입으니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 국제포교사로서 불법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삭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머리를 깎고 싶다는 마음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심(33) 행자는 이미 출가를 결심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불교에서 ‘내가 없으면서 편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선수련회에 참여했다”며 “참선과 법문 속에서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체험이 더 큰 발심으로 이어져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삭발식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순간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찾아 왔다”는 그는 “앞으로 나를 다스려 타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출가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행자들은 둘째 날부터 새벽 3시에 기상해 예불·참선·108배, 울력과 교리 강의, 불교 예절·염불·명상 실습 등에 참여한다. 또 정혜사 능인선원·견성암·간월암 등을 참배하고, 회향 전날에는 삼보일배 정진을 하게 된다.

수덕사 선출가학교는 조계종이 교구본사 차원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단기출가학교의 첫 사례다. 이어 송광사를 비롯해 내년까지 10개 권역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출가 진흥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 덕원사, 제2회 반려동물 천도재

9월 14일 대웅전서…650여 축생 영가 왕생 발원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9월 14일 대웅전에서 ‘제2회 반려동물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먼저 세상을 떠난 반려견과 반려묘 등 650여 축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은 이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주지 덕원 스님은 법문에서 “먼저 떠난 반려동물이 육도윤회를 거쳐 더 나은 생명으로 태어나길 발원한다”며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생명의 존엄을 새기고 자비와 평안이 일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도재에 동참한 한 시민은 “불자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종교를 떠나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기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덕원사는 앞으로 반려동물 천도재를 정례화해 생명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담양 용흥사, 제2기 불교대학 입학식

9월 14일 대웅전서, 25명 입학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9월 14일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는 주지이자 불교대학장인 덕유 스님과 학감 지호 스님, 교수사 능견·형진 스님을 비롯해 신입생 25명이 함께했다.

덕유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당시 불교 교단과 사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돌아보고 오늘의 불교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를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흥사 불교대학은 지난해 7월 조계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첫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평 용천사, 호남 최초 꽃무릇 자연장 개장

8월 25일 경내 일주문 인근
600평 규모로… 600기 안치
선양 통한 신앙 전승 기대


8월 25일 함평군의 정식 허가를 받고 개장한 용천사 꽃무릇자연장 조감도.

호남 최초의 수목장이 함평에 문을 열었다.

함평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는 8월 25일 경내 일주문 인근에 600평 규모의 ‘용천사 꽃무릇 자연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장에 따라 600기 안치가 가능하며, 현재 100여 기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주지 혜용 스님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꽃무릇 자연장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추석 무렵 꽃무릇이 절묘하게 피어나고, 겨울에도 청초한 잎이 돋아 있어 사계절 성묘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개장 소감을 밝혔다.

이어 “탈종교화 시대에 사찰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도와 자연스럽게 연계해 인연을 잇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적인 자연장은 조상과 부모를 모심으로써 신앙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동시에 사찰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장 부지에는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은목서가 식재돼 있다. 특히 은목서는 가을마다 하얀 꽃을 피우고 수백 미터에 이르는 향기를 내뿜어 참배객들에게 위안을 전한다. 안치 방법은 자연친화적인 종이함이나 황토함을 활용해 5~10년 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며, 용천사는 100년의 보장 기간을 두고 분양을 시행한다.

묘지석은 10cm 이하로 소규모 설치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으며, 안치된 영가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백중, 명절마다 공동 제사와 천도재가 봉행된다. 향후 용천사는 가족 단위 템플스테이와 명절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용천사는 이번 자연장을 직영하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도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을 설립해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된장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혜용 스님은 “자연장은 단순한 장묘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힐링의 숲이자 지역사회와 불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사찰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어르신 섬김 효잔치

지역 어르신 120명 초청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9월 17일 쌍봉사 마당에서 신도회(회장 장미선), 섬김봉사단과 반찬봉사단(회장 김진옥)과 함께 진안읍내 어르신 120명을 초청해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11번째 열리고 있는 이날 행사는 쌍봉사 만복의 소리 숟가락 장단, 노래교실 김은숙 선생님, 주채연 가수 등의 공연과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주지 보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자식들도 부모님 걱정을 내려놓고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노인복지관·자원봉사센터 MOU

관내 ‘주거 인프라 돌봄’ 서비스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도형 스님)과 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옥)는 9월 15일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밑반찬 배달 △주거 청소 △생활환경 정비 등 일상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형 스님은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통해 진정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법왕청, ‘마하평화봉사대상’ 시상

9월 17일 서울 HW컨벤션센터서
자비나눔 실천 공로 50여명 수상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총재 목탁 스님)는 9월 17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불교 마하 평화봉사대상 시상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은 ‘지구촌 어두운 곳에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주제로 200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인사를 맡고 있는 마하사 주지 자운 스님과 비로암 주지 월암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상운법현 스님, 보현사 신협 이사장 야허 스님 등 100여 스님이 참석했다.‘세계불교 마하 평화봉사대상’은 세계 각지에서 빈곤 구제, 의료 복지, 평화 증진, 교육 지원 등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한 이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의 인증이 부여되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총재 목탁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구촌 모두가 화합과 포용, 자비와 평등으로 하나 되는 세계불교를 선언한다”고 밝히며 “이 상은 봉사와 인류애를 삶 속에 실천한 분들에게 바치는 찬탄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법왕청 설립 원력이 싹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운 스님, 청명 스님, 혜정 스님, 월암 스님, 법원 스님, 심오 스님, 현담 스님, 법성 스님, 성운 스님, 대공 스님, 정인 스님, 대도 스님, 우진 스님 등이 승가상을 수상했다. 또 이호, 황영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재은 의전원장, 이정희 의전2원장, 최연호 봉사회장 등 재가불자들이 재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보살계 수계’로 봉사단 ‘20돌’ 기념하다

청주 지장사, 14일 수계법회
청주불자봉사단 20주년 기념



청주 지장사(주지 설몽 스님)는 9월 14일 대웅전 앞 금강계단에서 청주불자봉사단(단장 이진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증명삼사는 전계대화상 허허지명 대종사(법주사 조실), 교수아사리 금우 석담 대종사(법주사 박물관장), 갈마아사리 무설 현진 스님(청주불교방송 사장)이 맡고 설몽 스님(지장사 주지), 덕현 스님(마야사), 원철 스님(월리사 주지) 등이 10증사로 올랐다.

이날 법회에는 청주불자봉사단원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지명 대종사는 법문에서 “보살계는 수행의 사다리이자 생사의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며 “청주불자봉사단이 20년 동안 이어온 급식 봉사는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행의 모범”이라고 치하했다.

동참 대중은 참회진언을 합송하며 연비로 서원을 다졌다. 수계증은 참석 대중을 대표해 갈세현, 정은숙 불자 등 4인이 대표로 수여했다.

수계식에 이어 열린 청주불자봉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창립 이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여옥순, 김미수, 김영애 불자에게 이범석 청주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주지 설몽 스님은 축사에서 “불자들이 앞으로도 자비와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벽선암, 개산대재·생전예수재 회향

9월 14일, 송백숲 일원서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 스님)은 9월 14일 경내 송백숲에서 창건 84주 개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는 땅설법 법주 다여 스님의 특별축원과 봉송의 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사음악회에서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 등이 공연을 펼쳤다.

주지 혜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 84주년을 맞아 불교 의식과 문화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자 89% ‘조력존엄사’ 찬성…공론화 이뤄져야”

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세미나서
‘조력존엄사’ 불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합법화 찬성 의견, 타 기관보다 높아
‘자살’ 논쟁 有…가이드 라인 제시돼야
대안으로 ‘단식존엄사’ 논의도 필요해



옥복연 원장이 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조력존엄사 관련 불자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방식이다. 최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존엄한 죽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고, 올해 헌법재판소가 ‘의료조력사’ 공개 토론 등을 이어가며 공론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화두가 된 ‘조력존엄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사)불교아카데미(원장 옥복연)는 9월 13일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고찰부터 위헌 여부 검토까지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이뤄졌다.

불자들 “조력존엄사 법제화 찬성”

특히 옥복연 원장은 불교계 최초로 출·재가자 384명(비구 73·비구니 76·우바새 96·우바이 109·비불자 30)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력존엄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불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를 짚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옥 소장에 따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응답자의 89.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집단별로 보면 비구 스님이 91.8%로 가장 높았고, 우바이(89.9%)·비구니(85.5%)·우바새(85.4%) 순이었다.

법률안 찬반에 대해서는 89.1%가 찬성했으며, 비구 스님 집단이 91.8%로 법제화에서도 가장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합법화 찬성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 불필요’(40.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죽음의 자기결정권(36.7%)·고통 감소(13.5%)·가족부담 감소(6.2%)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경시 위험’이 3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출재가 집단의 답변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비구·비구니 스님들은 ‘불교 교리 불일치’를, 재가자 집단은 ‘생명 경시 위험’을 꼽았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등 타 기관 조사의 ‘조력존엄사 합법화’ 찬성 응답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보사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으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79%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옥 소장은 “불교인들이 일반인보다 조력존엄사 찬성 응답이 높은 것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집착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며 “불교인은 조력조엄사에 대한 경계와 의미를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력존엄사, 불교적으로 합당한가

‘존엄’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결정 아래 의사가 죽음을 처방하는 형태다. 이런 이유로 조력존엄사는 ‘조력 자살’ 또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날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력존엄사’ 주제 발표에서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을 예로 들며 “불살생계의 ‘생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하며, 살생 행위와 이를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락사 문제가 불교 윤리 내에서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도덕적 딜레마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율장〉과 그 주석서에서는 ‘비구가 타인의 죽음을 권유·유도·처방하면 즉결 승단에서 추방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죽음에로의 어떠한 조력도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교는 ‘자비’라는 방편으로 불가피한 살생을 윤리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양 선임연구원은 〈방편경〉의 ‘자비로운 선장’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생에서 선장으로 활동했는데, 하루는 배에 승선한 500명의 상인을 죽이려는 악인을 발견했다. 이에 선장은 자신이 죄업을 감수하더라도 악인을 죽여 500명을 살려 냈다.

양 선임연구원은 “〈방편경〉에 따르면 의도가 순수하고 결과가 압도적으로 유익하면, 그 행위는 방편으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확장하면 조력존엄사는 자비의 한 방편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지만 판단과 실행에는 보살도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통찰과 지혜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보편적 법제화로 쉽게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식존엄사’ 법제화도 논의를

조력존엄사가 ‘적극적 안락사’보다 온건한 존엄사 방식으로 분류되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양 선임연구원은 최근 서구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시도되는 ‘단식존엄사’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단식존엄사(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VSED)’는 당사자가 스스로 음식·수분 섭취를 중단해 죽음을 맞는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결정 능력을 가진 성인이 적법하게 선택한 경우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과 자택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단식존엄사 기록을 담아낸 대만 의사 비류잉의 책 〈단식존엄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식존엄사도 쉽지 않다. 당사자가 자택에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음식물을 중단할 경우, 그 가족이 자살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양 선임연구원은 “조력존엄사는 불살생계 및 그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단식존엄사는 육체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상관과 깨어 있는 죽음에 대한 강조와 접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곡기를 끊는 단식존엄사가 법제화되거나 문화적으로도 그 가치와 권리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이를 시행할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교, ‘죽음준비교육’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무엇이 진정 ‘존엄한 죽음’인지를 알릴 것을 불교계에 주문했다.

양 선임연구원은 “불교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종교다.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생로병사에 대한 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죽음준비교육’ 확대다. 필연적 죽음을 대비하고 자신의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웰빙의 증거이고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력존엄사가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있는 만큼 단순 반대나 낙관이 아닌 불교윤리적 가이드 라인의 제시도 제안됐다. 양 선임연구원은 “단식존엄사 등 대안적 방식에 대한 윤리·실천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단 차원의 윤리자문기구를 구성해 병원 윤리위원회와 연계하거나 조력존엄사 등 고위험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몽골 침략 극복 원력 담긴 ‘고려 오백나한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12일 지정예고
고려불화 특징 담아낸 秀作
세종 비암사 소조여래좌상도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가피로 이겨 내길 기원하며 조성한 고려불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조성된 ‘고려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된 것이다. 지정예고 대상은 제329원상 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는 고려불화의 특징인 품격 높은 예술성과 신비로운 종교적 감성을 담고 있으며, 남아 있는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지정예고된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상에서 보이는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 신체 비례, 활달한 선묘(線描) 등 양식적 특징상 16세기 중엽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정예고한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오백나한도’.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불교미술 작가들이 그려낸 마음의 형상들

한국불교미술협회전 '유심형상'
10월 20~26일 한벽원미술관서
회원 60여 명 출품작들 선보여
'올해의 작가'엔 황체성 작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선희 협회장의 작품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불교미술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제33회 협회전을 개최한다.

1980년 창립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교미술 단체로서 지난 45년간 정기전과 특별전을 통해 불교미술의 대중화와 발전을 이끌어 왔다. '유(唯)·심(心)·형(形)·상(像)'을 주제로 열리는 서른 세 번째 협회전에는 강수경, 서칠교, 진철문 등 전문 불교미술 작가 60여 명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작가들은 전통적인 불화와 불상, 공예부터 현대미술·미디어와 접목된 색다른 불교 작품들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특별세션으로 동국대 서울캠퍼스·WISE캠퍼스·한국전통문화대 졸업생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불교미술의 미래를 이끌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미술을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희 한국불교미술협회장(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은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유심(唯心)은 모든 존재와 세계가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개념을 넘어 불교 예술의 근본적인 주체이자 시각적 창조의 원천으로 작동해 왔다"며 "이번 협회전은 이 같은 경전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이 곧 세계가 되고 예술이 되는 불교미술의 깊은 사유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미술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사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끊임없는 학문적 노력,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 요구된다"면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한국불교미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올해의 작가'로 황체성 작가를 선정했다. 황 작가는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불교미술협회전(2024), 한국전통회화협회 창립전(2025) 등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상상相想'(2023), 무우수갤러리 기획초대전 '상상붓다'(2024)를 진행했다. 2023년 천태예술공모대전 특선, 2025년 갤러리한옥 불화·민화공모전 불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실력 있는 신진작가이다.

황 작가는 오는 9월 24~29일 서울 종로 선아트스페이스에서 세 번째 개인전 '발원'을 연다. 황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가사 대신 오늘날 정장을 차려입은 부처님 등 부처님의 형상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이 같은 시도는 '지금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됐다"면서 "어쩌면 부처님은 거창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조용히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전시를 통해, 그 마음이 예술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성파 스님·제자들 '옻칠 한국화' 선보인다

11월 30일까지 울산 만디서
'수기맹호도' 등 작품 전시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옻칠 한국화 사제전'이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울산 태화문화공간 만디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성파 스님과 제자들의 10여 년 수행과 예술적 결실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또 성파 스님의 대작 '수기맹호도'와 '피안으로' 등이 전시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파 스님은 "옻칠 한국화는 전통문화예술의 맥과 수행적 삶이 맞닿아 있는 작업"이라며 "울산에서 불교예술과 한국화의 새로운 가치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라고 말했다.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성파 스님과 불일아트아카데미 제자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울산 전시인 만큼 시민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조계종 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주관하며 울산광역시가 후원한다. 개막식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됐다. 052-243-9500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파 대종사 작품 '수기맹호도'(2012).

핫한 '박물관 굿즈', 우리도 만들어 볼까

불교중앙博 '다량소장처 교육'
10월 15~16일 굿즈 등 주제로
국중박 10월 1일 '우리 공예美'
굿즈 개발자 대상, 유홍준 직강

최근 핫한 문화콘텐츠로 부상한 '박물관 굿즈' 기획 등을 전문가들에게 배워 볼 수 있는 강의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10월 15~16일 1박 2일 간 '2025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전문교육'을 아미드호텔 서울 강의장과 창덕궁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박물관 문화상품(굿즈)'과 '박물관 홍보영상 기획' 주제 강의, 창덕궁 현장 견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0월 15일 첫 번째 강의는 진나라 국가유산진흥원 공예산업진흥실장이 '국가유산이 문화상품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최근 주목 받는 문화상품 트렌드와 문화상품이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한다. 이어 이종철 영상촬영 PD가 '박물관 홍보영상의 사례와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 박물관 영상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전시 홍보 영상부터 관람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까지 목적별 영상 제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0월 16일에는 창덕궁 현장 견학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10월 1일 오후 3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제로 한 '뮤지엄 아카데미 분야별 과정' 특강을 개최한다. 대상은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특강 주제는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 문화상품 개발자를 위한 특강'으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유 관장은 강연에서 공예의 본질적 속성인 쓰임새[用]와 아름다움[美]의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전통공예에 보이는 실용성과 조형성의 조화, 문화산업 자원으로서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다룰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⑪ 연기

통찰과 선택, 능동적 변화

緣起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자", "전생부터 삼천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다"와 같이 '인연(因緣)'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나, 흔히 우연이나 숙명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붓다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어우러져 발생한다고 통찰했다. 연기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줄임말로,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기쁨과 슬픔, 전쟁과 평화 모두 인간의 의도와 주변 조건이 만나 만들어 낸 결과이다.

연기법은 불교 교설의 근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이것이 발생하면 저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연기법의 기본 공식이다. 업보란 몸짓과 말, 그리고 의도적 행위가 인연이 되어 드러나는 결과를 뜻한다. 사성제(四聖諦) 역시 고통과 그 원인, 열반과 그 조건을 설명하는 구조로 연기법에 기초한다. 무아(無我)와 공(空) 또한 연기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존재의 실상을 밝힌다. 〈맛지마 니까야〉에서 사리불 존자는 "벗들이여, 세존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연기법은 해탈과 안락의 길을 열두 단계의 조건 연쇄로 구체화한다. 무명(無明)은 욕탐을 낳고, 결국 생로병사와 온갖 근심과 고통을 일으킨다. 따라서 붓다가 연기법을 설한 뜻은 두 가지다. 첫째, 세상의 이치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라는 법칙을 통해 어리석은 의도와 행위를 멈추고 지혜와 자비를 깨닫도록 이끄는 데 있다. 대승불교에서 해(解)와 행(行)이 함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에 부합한다.

마르크스는 27살에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해석해 왔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연기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삶과 세상을 단순히 해석하는 관찰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와 우리가 빚어낸 현실을 통찰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세워 실천해야 한다. 붓다가 십이연기에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환멸문(還滅門)'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행이란 곧 연기법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 연기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7~9/2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선명상 길라잡이	미래본부	조계종출판사	6	관세음보살 기도법(초발심자를 위한)	하일스님	솔과학
2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7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3	초역 부처의 말 필사집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8	법화경 법문(이것이 법화경이다)	무비스님	담앤북스
4	33관음 컬러링 북	정기란	담앤북스	9	불교 행운상징 컬러링 북	박혜원	담앤북스
5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10	선생님 지도에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저,허주형	운주사
2	초기불교입문 : 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7	중론 : 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짓음/청목 주석	오타쿠
3	맛지마니까야(1)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억울한누명 : 김성철교수의 불교시 모음	김성철 시집	오타쿠
4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 수행(명상치료5)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9	낡은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원고 68편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수릉엄경	이운허/김월운 개역	동국역경원	10	불멸(2) 실체없는 자존심	이각 지음	지혜의눈

〈반야심경〉에 이르는 두 가지 길

초기 경전으로 푼 연기와 무아
현실 언어로 불교의 본질 살펴

현대물리학 언어로 읽는 '공(空)'
"우주는 〈반야심경〉의 세계관"



재연 스님의 반야심경 읽기
재연 스님 지음
문학동네 / 1만9800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사지 하루오 지음 / 주성원 옮김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면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평가되는 경전이 〈반야심경〉일 것이다. 불과 260자 남짓한 짧은 문장 속에 '공(空)'의 가르침이 압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 압축성 때문에 〈반야심경〉은 누군가에게는 신비한 주문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시중에 출간된 수많은 해설서만큼 〈반야심경〉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재연 스님의 반야심경 읽기〉는 초기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반야심경〉을 풀어 낸 책이다. 저자 재연 스님(한국초기불교대학원장)은 인도 푸나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 및 프라크리트어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장 등을 맡아 빠알리 니까야의 가르침을 전해 왔다.

책은 곧장 〈반야심경〉으로 들어가는 대신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초기 경전인 〈초전법륜경〉, 〈보름날 밤 경〉, 〈무아상경〉을 통해 중도와 사성제, 오온 등 불교의 주요 개념을 먼저 설명한 뒤 〈반야심경〉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반야심경〉이 사실은 인간 고타마 싯다르타의 실존적 고민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경전 해설 방식 역시 엄숙함 대신 친숙함을 택했다. 스님은 '엉성한 스님'으로서 자신이 겪는 일상적인 마음의 부침이나 '된장국을 무척 좋아하는 중년 남성 아무개'의 위태위태한 수행담 등을 소재로 '십이연기'를 설명한다. 십결(十結) 가운데 색탐(色貪)과 무색탐(無色貪)은 솔직히 자신도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중노릇 50년으로도 욕탐과 악의의 해결은 막막하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럽고 서글프다"는 고백은 현실 속에서 불교를 고민하는 수행자로서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재연 스님은 "〈반야심경〉을 포함한 방대한 반야부 경전은 고타마 붓다의 연기(緣起),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며 "다시 강조하건대 〈반야심경〉의 '심(心)'은 멈춰선 '마음'이 아닌 '뛰는 가슴'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 연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도현 시인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반야심경〉이 초기에 담고자 한 의도를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문장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불교의 원리를 이처럼 명쾌하게 풀어 낸 저자가 또 있을까 싶다"며 숙독(熟讀)을 권했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은 일본의 천체물리학자 사지 하루오(佐治晴夫)가 안내하는 〈반야심경〉 해설서다. 저자는 마쓰시타 전기 도쿄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쿄대학 물성연구소 연구원, 미야기대학 교수, 스즈카단기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이론물리학자로 양자론적 무(無)에서 우주 창조에 관한 '진동' 이론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불교 철학의 입장에서 쓴 〈반야심경〉의 해설서가 아니라 〈반야심경〉에 쓰인 내용을 기점으로 현대 과학이 이해한 우주의 모습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일하며 우주를 연구해 온 저자는 별과 행성, 원자와 입자의 움직임을 탐구하다가 불교 사상과의 놀라운 접점을 발견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와 공 사상과 일치한다.

저자는 "내 몸은 매일 변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으로 불교적 사유를 풀어 낸다.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세포가 교체되는 생명 현상, 빛의 이중성은 곧 〈반야심경〉의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적 언어가 된다.

특히 어려운 철학 개념을 과학적 비유로 쉽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물이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존재하듯,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관계와 조건이 모여 이뤄진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홀로 존재하는 나'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연기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500곳이 넘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준 경험, 음악과 예술까지 넘나든 저자의 이력은 책에 따뜻한 울림을 더한다.

앞서 소개한 두 책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이르는 곳은 같다. 〈재연 스님의 반야심경 읽기〉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은 우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두 책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새로 나온 책

색칠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마음고요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명상 카툰 작가인 용정운 씨가 마음공부의 한 방법으로 그리고 채색한 만다라 도안 100가지를 담은 책이다.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일 때는 간단한 도안을, 차분히 몰입하고 싶을 때는 세밀한 도안을 골라 색칠하면 된다. 도구나 방법, 순서 모두 정해진 바 없이 자유롭게 하면 된다.

만다라는 티베트 불교 수행법에서 비롯됐지만 오늘날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치유의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용정운 작가는 "만다라는 바쁘고 혼란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자 '명상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별한 이를 위한 붓다의 조언



사랑은 아프다
로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
운주사
1만4800원

삶은 이별의 연속이다. 명상 지도자이자 작가인 저자는 명상을 가르치며 만난 이들에게 들은 이별담과 실연담에 붓다의 가르침으로 답한다.

책 읽는 법과 사랑에 대한 정의, 명상하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혼자인 것 같다면',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페이지를 펼쳐 읽으면 된다.

저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된다"며 "이 책을 통해 내가 괜찮아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우리 안에 늘 있다



현존의 행복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신성일 ·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모든 사람이 변함없는 행복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까닭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도자 2세대를 대표하는 도예가이자 명상 지도자인 저자가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행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명상 에세이다.

저자는 "우리는 행복을 몸과 마음의 상태로 오해하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임을 깨닫고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 무작정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자고 제안한다. 질문에 곧 답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늘, 마음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
윤창화 | 304쪽 | 13,500원

"오늘도 간신히 버텼다."

이 짧은 고백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불면의 밤, 무너지는 관계와 일상.
우리는 모두 지쳐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오히려 단 한 줄, 귓가에 스며드는 따뜻한 위로,
그것은 붓다의 한마디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티베트불교 30년 순례기



바람의 노래가 된 순례자
김규현 지음
장경각
2만7000원

'티베트 마니아'의 발자취 담아
라다크·무스탕 등 유적지 순례
밀라레파 등 성자들의 가르침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993년, 티베트 수도 라싸에 첫발을 디뎠다. 포탈라궁을 향해 오체투지를 한 그날 이후 그는 '티베트 마니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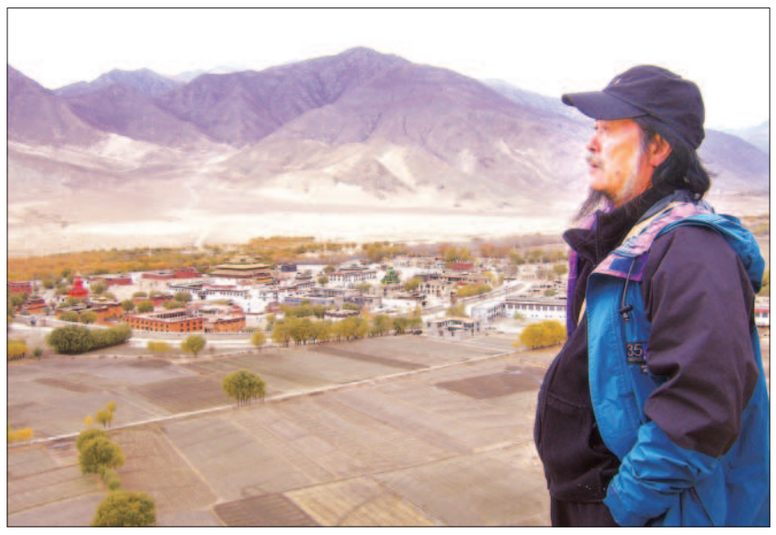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에 천착하며 다양한 저술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김규현 씨가 지난 30여 년간의 순례를 망라한 〈바람의 노래가 된 순례자〉를 출간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월간 〈고경〉에 연재한 '설산 저편 티베트불교' 중 28편을 골라 담은 책이다.

1부 '설산 너머 깨달음의 향기를 따라서'는 라다크, 무스탕, 네팔, 부탄 등 티베트불교의 성지를 소개한다. 2부 '수행자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제6대 달라이라마 등 불교 성자들의 가르침을 전한다. 3부 '티베트불교의 지혜와 숨결'에서는 환생 제도와 오색깃발 등 티베트불교의 또 다른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선보인다.

특히 부탄 탐촉 다리에 얽힌 일화가 인상 깊다. 저자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Bridge over troubled water)'에 나오는 다리가 바로 탐촉 다리라며, 그것은 "사바세계에서 열반으로 건너가는 대승의 다리"라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호사가들은 스스로의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다. 하지만 나 같은 티베트 마니아들은 티베트불교의 진수를 감추어 놓은 사원들의 훈기를 직접 맛보려고 그렇게 힘든 순례길에 오르는 것이다."

쉽게 경험하기 힘든 티베트불교의 내밀한 모습과 히말라야의 숨결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저자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화공학과에 재학 중 백담사 새벽 염불 소리에 '영혼이 세차게 흔들려' 해인사로 출가한다. 이후 만행길에 올라 효당 스님에게 차를, 의재 선생에게 사군자를 배웠다.



'티베트 마니아' 김규현 씨가 30년 간의 발자취를 담은 〈바람의 노래가 된 순례자〉를 펴냈다. 사진은 저자가 티베트 해포리(Hapori)산 중턱에서 삼예 사원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모습.
사진 제공=장경각

1979년부터 홍천에 정착해 가정을 꾸렸지만 1993년 티베트와의 만남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중국 베이징 중앙미술대학에서 목판화를 전공했고, 1995년에는 티베트대학에서 탕카를 연구하며 불교 유적지를 순례했다. 1997년 홍천으로 돌아와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를 설립,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

2015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네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그길로 네팔로 떠나 티베트 난민촌 학교에서 미술을 지도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부처를 만난 그는 매년 본인과 아이들의 그림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30년 순례를 한 단락 매듭지은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필생의 화두였던 영혼의 산 카일라스에 오르기 위해서다. "왜 그렇게 험하고 힘든 곳을 가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는 말한다.

"길은 삶이다. 길에서 시작되고 길에서 끝나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길은 끝나는 법이 없다."

'나무의사'가 일깨우는 생태감수성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
우종영 지음
조혜란 그림
흐름출판
2만3000원

기후위기 시대의 관계 회복법
움벨트·산결 등 68개 생태단어

기후위기는 더 이상 과학자나 환경운동가만의 화두가 아니다. 날씨는 예측 불가능해졌고, 자연재해는 해마다 광폭하게 우리를 덮친다.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는 새 책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에서 나무와 숲, 그리고 그 곁에 깃든 생명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생태감수성'을 일깨운다.

저자는 1995년부터 나무를 치료해 온 한국의 '비공식 1호 나무의사'다. 2018년 제도가 공식 도입되기 전부터 병든 나무를 돌보고, 도시의 가로수를 살리고, 기후 변화로 죽어가는 자작나무를 안타깝게 지켜봤다. 그는 "나무는 스스로 도망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기후 변화에 가장 불리하다"고 말한다. 강원 화천에서 35년간 키운 자작나무 숲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당하던 순간, 그는 인간이 나무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답을 '언어'에서 찾았다.

책은 '생·태·감·수·성' 다섯 장에서 68개의 '자연의 단어'를 소개한다. '움벨트'는 같은 나무에 머물더라도 딱따구리와 여우가 보는 떡갈나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고, '미기후'는 깊은 산자락 얼음과 눈으로 덮인 땅도 어떤 꽃에는 더할 나위 없는 삶터가 될 수 있음 일러 준다. 또 일본어 '코모레비'에서 착안한 '잎새빛', 산줄기의 결을 뜻하는 '산결' 같은 단어를 새로 만들어 "언어가 사라지면 세계를 보는 감각도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사전에 생태단어가 하나 추가되면, 그 세계에 생물 한 종이 추가된 것과 같다"는 그의 말은 언어의 힘을 새삼 깨닫게 한다.

불교의 연기(緣起)는 생태감수성과 깊이 맞닿아 있다. 저자는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나-너' 개념을 인용하며, 나무와 숲을 '대상'이 아닌 '너'로 대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된다고 강조한다. 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가뭄이 오면 함께 목말라하며, 가지에 매달린 이슬을 들여다보며 나를 비추는 순간, 인간과 자연은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연을 위한 거창한 행동보다 먼저, 자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한다. 사라져 가는 언어를 되살리고, 나무의 고통에 마음을 쓰는 일은 기후위기를 늦추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정호승 시인은 "인간이 자연임을 잊고 사는 데 대한 경종의 종소리"라며 "인류의 희망은 한 그루 나무와 한 포기 풀을 영원히 살리는 데에 있음을 일깨운다"는 추천사를 남겼다.

여수령 기자

정신과 의사의 마음 관리법

상처받은 마음 다루는 새로운 시선
마음 살피고 적용하는 '실용심리서'
가독성 높은 편집으로 읽기 쉽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
박성봉 지음 / 담앤북스 / 1만6800원

"왜 나는 늘 남의 말에 마음을 다칠까?"

상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가까운 이와의 일상적인 대화에 마음을 다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수 있을까?

정신과 전문의인 박성봉 작가(사진)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을 다쳤다면 그 순간 남의 탓, 나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무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나빠지는지를 살펴보면 무의식에서 어떤 욕망이 작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외롭고 싶지 않은 욕망, 좋은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욕망이 채워진다고 계속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내담자와 함께해 온 저자는 임상 경험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루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상대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유와 상대의 말에 내가 반응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마음속 무의식에 자리한 '좋은 나'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심리학적 이해와 불교 교리를 접목해 풀어낸다.

저자는 욕망이 생겨나는 원인과 욕망을 줄이는 법을 팔정도와 육바라밀에 기반해 설명한 후 '직원이 잘 따라 주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을 하고도 인정을 안 할 때'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책은 문장과 글자 수를 줄이고 읽기 편하게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또 전문 의학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와 예시를 사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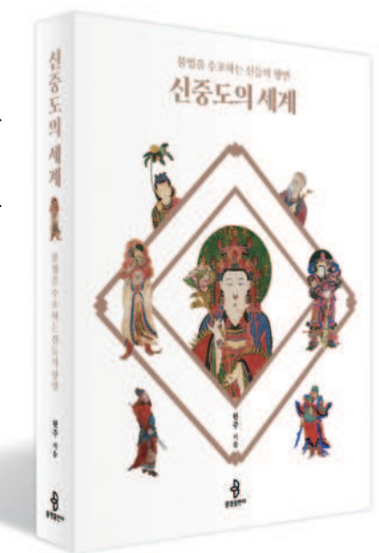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부산구도회에서 불교를 공부하며 교리와 심리학을 접목한 임상적 활용 방법을 모색해 왔다. 여수령 기자



"한국 불교미술만의 독창적 세계,
드디어 만나는 신중도神衆圖"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선신善神들,
그 장엄한 세계를 해부한 최초의 연구서!

신중도의 세계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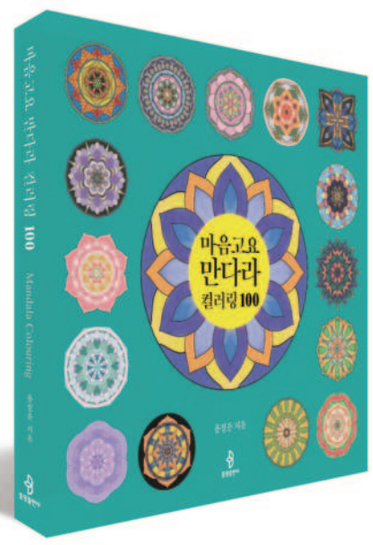
현주 지음
504쪽 | 올컬러
35,000원

현주 스님은 해석하기 어려운 신중도를
시기에 따른 양식적 특징까지도
포함시켜 참 쉽게도 설명해 주었다.
이 한 권이면 신중도가 더더욱 친밀해지고,
불화는 더 이상 도깨비 그림이 아니다.
_동국대 명예교수 정우택

100가지 만다라와 함께 하는
출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명상 카툰 작가이자 명상 수행자인 저자가
마음공부를 위해 정성스럽게 그려낸 100가지 만다라 도안 수록!

마음고요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지음
144쪽 | 양장 | 올컬러
19,000원

미술 치료 기법 중 하나이자
명상의 한 방법, 만다라 컬러링!
선으로 이루어진 만다라에
색을 입히다 보면 출렁이는
감정과 생각 대신
고요한 마음에 다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컨퍼런스 석학에 듣다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컨퍼런스가 9월 25~26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 일원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와 해외 석학 6명 · 국내 석학 3명이 참석해 최신 명상 연구들을 공유하고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본지는 국내 석학인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과 해외 석학인 해롤드 로스(Harold Roth) 미국 브라운대 종교학과 교수를 인터뷰해 지면에 게재한다. 해롤드 로스 교수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인터뷰 전문은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마음 안정·이타적 실천 함께 해야 바른 명상”

정도 스님(동국대 종학연구소장)

명상 수행 통해 자비심 고양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 명상 수행
선명상, 현 시대 맞는 포교 방편



Q 대중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 나라다. 물질적 발전을 빠르게 이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는 못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구의 명상붐과 함께 MBSR 등 현대적 명상기법들이 역수입됐고, 지식인·인플루언서 등의 명상 체험 공유가 확산을 거들었다. 이러한 복합 요인으로 명상을 찾는 흐름이 강해졌다.

Q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명상과 불교 명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요구하고 쉽게 접하는 명상은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 속 화나고 슬픈 감정들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반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명상은 깨달음, 본성을 찾아가는 수행이다. 지향점은 다르지만 일반인들에게 명상은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 대중 명상 확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Q 최근 사유와 성찰이라는 명상의 본질을 벗어난 ‘패스트푸드식 명상’에 대한 비판이 많다. 명상법의 선택이 소비자의 몫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명상이 최고’라는 식의 과도한 강조와 종교색은 최대한 지양하면서도 불교의 정신을 함께 투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교의 수행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수행을 통해 자비심을 고양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 명상 수행의 완성이다. 마음의 안정이 한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타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명상’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자 현 시대에 맞는 포교의 실효적 방편이다. 탈종교시대 ‘명상’은 대중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접점이며 기존 용어보다 친화적으로 접근해 대중들을 불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

Q 명상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내용을 미리 소개해 준다면.

우리나라 전통선은 초조 달마 스님과 6조 혜능 선사로 시작해 임제스님, 대혜 종고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조사선 전통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전통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현대 명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보조 지눌 선사의 정혜쌍수(선교일치) 정신이 동국대 불교·명상교육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도 조명하려 한다. 동국대 필수 교양 교육인 ‘자아와 명상’은 선(禪)이며 ‘불교와 인간’은 교(敎)다. 이처럼 동국대의 불교교육이 전통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Q 최근 한국도 공교육 내 ‘사회정서학습’을 강화하는 추세다. 감정 조절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중점으로 두는 ‘사회정서학습’은 명상과도 가까워 보인다.

일선 교사와 교법사들과 이야기해 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통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고민들이 많았다. 명상은 스스로를 꾸준히 돌보는 훈련으로 지속 변화를 돕는다.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들과 함께 은석초등학교에서 서울시 방과후 수업 일환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 반응과 호응도 매우 높았다.

현재 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 선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종단적으로 고민·준비하고 있다. 명상을 통한 정서교육은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Q 이번 명상컨퍼런스의 의미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명상 관련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컨퍼런스는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붓다브레인〉의 저자 릭 핸슨 UC버클리대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 수석연구원을 비롯해 ‘마음챙김 수행을 통한 대학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에릭 룩스 브라운대학 마음챙김센터 소장, ‘명상학’의 선두 주자 해롤드 로스 브라운대학 교수 등에게 강연을 듣는 기회는 흔치 않다. 템플스테이와 정신건강, 의료현장에서 명상의 효용성을 살핀 국내 석학들의 강연도 주목할 만하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명상교육, 학생 잠재력 발견·실현 효과”

해롤드 로스(미국 브라운대 종교학과 교수)

명상학 · 명상교육학 선도 석학
명상+인문 · 과학적 연구 핵심
교육 통해 ‘명상 지능’ 개발을



Q ‘명상학(Contemplative Studie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다. ‘명상학’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달라.

‘명상학’의 핵심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명상적 체험을 인문학·과학·예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있다. 우리는 ‘명상(Contemplation)’을 집중력 있는 ‘주의 집중’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패턴, 자아 정체성, 그리고 이원적·비이원적 인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스, 암벽 등반, 야구, 윈드서핑, 스키와 같이 몰입해 자기의식을 잊고 완전히 빠져드는 활동 역시 집중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명상적 체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의도적 명상은 전통 명상이 가져오는 심층 통찰이나 심리 변화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Q 현재 미국에서 명상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현재 북미에는 약 25개 이상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명상학 혹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USC(남가주대), 버지니아대, 오리건주립대, 오타와대, 미시간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윌리엄앤메리대와 에모리대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전통 맥락에서 벗어난 명상 기반 심리치료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MBSR(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CT(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등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Q ‘통합 명상 교육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대 교육에서 명상교육이 왜 필요한가.

명상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명상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며, 삶에서 맞닥뜨릴 다양한 도전에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더 큰 사회적·환경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함양해 공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 준다.

저는 이것을 ‘명상적 지능(Contemplative Intelligence)’이라 부른다. 이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발전한 다양한 명상 수행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지능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Q 현대 교육 시스템에 명상교육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우선 몇 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는 조기 명상교육의 효과 홍보이고 두 번째는 연령별 맞춤형 교수법 개발, 마지막으로는 교사 역량 강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국제명상연구학회(ISCR) 2차 회의에서 ‘명상교육 네트워크(Contemplative Education Network, CEN)’를 결성했다.

현재 약 400명의 회원이 있으며 △멘토링·지원 △홍보 △연령별 커리큘럼 개발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국 연구자와 교사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Q 명상컨퍼런스에서 한국 불자와 시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대적 실천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불교 가르침은 인간 경험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불교 명상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자뿐 아니라 비불자에게도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교리와 실제 체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명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6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한줄 요약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고락(苦樂)의 감정에 의해 고락의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설사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을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갈무리해야 합니다.

'의견 대립→감정 악화' 악순환 끊어 내라

[오늘의 명상]
마음으로써 고요함을 지키려 하나
여전히 업(業)의 병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성품(性品)은 공(空)하여 스스로 떠나니
마음 뜨고 가라앉을 때 기다려 볼까.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견이 맞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내 것을 지키고 쟁취하려는 욕심과 자존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개인 간의 싸움이나 집단과의 다툼, 나라와의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나의 의견이 관철되면 기분은 좋을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감정이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 쪽은 안 좋은 감정이 잠재돼 있다가 언젠가는 복수심이 발동돼 또 다시 충돌하게 되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가볍게 넘기고 털어버리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대상을 대하고 관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선 인과(因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정의 폭이 크면 클수록 기분이 아주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과보(果報)로 안 좋은 기분 또한 반드시 생겨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인과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세상사란 각자 개개인의 감정놀음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건 자신의 감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심초사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감정의 마음이란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엎치락뒤치락하며 윤회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견의 충돌에 있어서 내 생각이 관철되어 기분이 좋았다면 기분 좋은 만큼 다음에는 안 좋은 기분이 생기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니, 이는 필연적인 수순이고 인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고락(苦樂)의 감정에 의해 고락의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설사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을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갈무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고 안 되고는 인연에 맡기십시오. 이러한 대승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최선을 다한 뒤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감정이 기복(起伏)하는 과보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떤 의견이 충돌된다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자 의견만을 피력할 경우 갈등 초래
누군가는 악감정 갖고 복수심만 내재
어떤 상황서도 감정 드러내서는 안 돼
苦樂의 감정 의한 업보들이 계속 발생
감정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 의견 개진

[오늘의 명상]
들어온 것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자 함은
숨을 뱉지 않고 들이키고자 함과 같으니
나가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숨을 쉬듯 새로운 것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마음을 잃게 되거나, 재물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여 마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도둑을 당하거나 노름으로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한 속상함은 보상받을 길이 좀처럼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더 이득을 보거나 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본래 내 것이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살아가는 동안 잠시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들어온 것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과 집착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가는 것에 대한 속상함의 충격은 크게 다가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때가 되면 밀물이 되고, 때가 되면 썰물이 되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들어올 때는 밀물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는 썰물처럼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인연의 소치입니다.

문제는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고, 썰물처럼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 뺏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떼인다 하더라도 '인연의 때가 되어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즉시 마음도 평안해질 뿐더러, 나갔던 것도 민망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니 숨을 뱉어야 들이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들고 나는 것에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의 그릇에 따라 들어온 것은 넘치게 되면 어떻게라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잃는 것에 대해 속상해 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넉넉히 먹고 매사 인연의 소치로 생각하여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재물은 소리 없이 편안한 마음의 자리로 다시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아잔타석굴 9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산치대탑등 순례 일정입니다.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산치대탑-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9만원 (보시금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⑭ 혜희(惠熙, 慧熙) 스님



▶한줄 요약
혜희 스님은 법령 스님의 계보를 이어받아 38년 동안 충정과 전라 지역의 주요 사찰에 불상을 조성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17세기 중반 당대 최고 조각승으로 평가받아

조각승 혜희 스님은 17세기 중반 공주 계룡산에 거주하면서 충청과 전북, 나아가 경북 지역 사찰의 부속 전각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혜희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40년부터 1677년까지로, 10건 14점(수화승으로 7건 9점)의 불상을 제작했다.

혜희 스님은 1640년 음력 2월부터 4월까지 법령 스님을 도와 군산 불명사 아미타삼존(본존은 익산 숭림사 봉안), 석가삼존, 미타상, 독성상을 제작할 때 6명 가운데 네 번째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1641년 6월 임금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빌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던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의 조속한 환국을 기원하면서 수화승 청헌 스님, 법령 스님 등과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성에 참여했다.

그리고 1년 후인 1642년 음력 7월 수화승으로 고령 반룡사 목조비로자나삼존좌상을 제작하고, 1640년대 후반 공주 갑사 내원암 목조여래좌상을 천윤(天允) 스님, 상민(尙敏) 스님, 선운 스님과 함께 만들었다.

이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화원산인 혜희(畫員山人惠熙)'로 적혀 있어 혜희 스님이 계룡산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성발원문에 제작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아 특정할 수 없지만, 대시주(大施主)로 참여한 행화(幸和) 스님이 1650년 6월에 제작된 갑사 괘불도(掛佛圖) 화기(畵記)에 '대시주 행화(幸和) 영가(靈駕)'로 적혀 있어 내원암 불상을 제작할 때 살았지만, 괘불이 완성될 때 열반에 들어 불상 제작의 하한이 1650년 6월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1653년 혜희 스님은 지수 스님을 도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한 후, 1655년 후배와 제자 20명과 함께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을 제작하고, 1659년 상림 스님, 마일 스님 등과 보은 법주사 석조보살좌상(충주 혜원정사 봉안)을 만들었다.

또 혜희 스님은 1662년 정월에 궁인(宮人) 노예성(盧禮成)이 소현 세자의 셋째 아들인 경안군과 그의 부인 허씨, 경자생 박씨(庚子生朴氏)와 노씨(盧氏), 윤씨(尹氏) 등의 만수무강을 발원한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금문 스님과 만들었다. 이 시기의 대부분 중형 불상은 최소 5명 이상이 제작했으나, 이 보살상은 두 명이 제작해 특이하다.

또한 스님은 1676년 대둔산 안심사 화장암 목조여래좌상(김제 금복사 봉안)과 1677년 대둔산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전주 일출암과 부산 금정사 봉안)을 제작하였다.



고령 반룡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42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62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김제 금복사 목조여래좌상(1676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법령 스님의 조각승 계보 계승
17C 중반 충청 · 호남 등서 활동
마일 · 금문 · 청윤 스님의 스승

혜희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여러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혜희 스님은 공주 계룡산에 거주하며 1640년 2월부터 1677년 6월까지 활동했다. 따라서 최소한 혜희 스님은 1610년대에 태어나 1620~1630년대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1640년 법령 스님이 제작한 군산 불명사 목조여래좌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년 후인 1642년 수화승으로 고령 반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적어도 30대 전·중반에 불교계에서 실력이 검증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655년 왕실의 후원을 받아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조각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676년 완주 대둔산 안심사와 1677년 대둔산 용문사에 목조불상을 만들며 노년까지 제자들과 같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스님은 말년에 정3품(正三品) 문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공명첩(空名帖)을 받았다. 혜희 스님은 수화승으로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고령 등 사찰에 불상을 만들었다.

혜희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법령(1615~1641 활동)→철학(哲學, 1640~1654)·각현(1624~1640)·혜희(1640~1677)·천윤(1629~1655)·조능(1640~1657)→마일(摩日, 1655~1701)·금문(金文, 1655~1706)·청윤(淸允, 1684~1716)→세균(1703~1730)·여찬(1706~1746)·취습(1706~1711) 스님 등으로 이어지며 17세기와 18세기까지 전해졌다.

혜희 스님의 대표작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 92.3㎝의 중형 보살상으로, 머리에 비해 몸이 작은 편이다. 머리 위에는 금속으로 만든 화불(化佛)을 중심으로, 구름과 꽃무늬, 화염무늬 장식이 더해진 크고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보관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 준다. 특히, 보관 양옆에는 화염 장식을 활용해 곡선 형태의 관대(冠帶)를 수평으로 휘날리듯 늘어뜨려 상반신이 더욱 커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옆으로 길게 뻗은 눈썹과 눈, 얇고 단단히 다문 입이 특징이며, 귓불에 연주문 귀걸이가 표현돼 있다. 수인은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정병을 들고 있으며, 왼손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있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승각기를 입고, 치마는 꽃잎처럼 여러 겹의 규칙적인 주름을 잡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치마 아래에는 이를 묶은 짧은 띠 매듭이 조각돼 있다. 천의는 양어깨에 숄처럼 두르고, 한 가닥은 팔 뒤로 둥글게 늘어진 뒤 양팔을 감싸며 밑판까지 흘러내린다. 무릎 위에는 사선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서로 겹치듯 포개져 있으며, 양 무릎 아래에는 꽃무늬와 구름무늬, 아래로 늘어진 장식 등으로 구성된 갑대를 두어 장식 효과를 더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8호 | 15 | 전면광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서울 은평구 3층건물 3층 (지하철역에서 300m이내 대로변 위치)
- 임대평수 24평
- 보증금 1000/월세 80만원
- 시설 인수 2500만원 필요, 냉난방 완료
- 인수 후 바로 사찰 운영 가능

010-3776-3795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청 6동사무소 옆 명학시장 2층
- 총 60평 규모
- 법당, 침실 겸 서재, 주방, 창고
- 보증금 1000만원/100만원

010-5495-4678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2천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서 사천시 경계
- 대지 총 133평(텃밭 20평 포함)
- 건물 법당 30평(인법당 및 스님 주거공간 포함)
- 공양채 20평(태양광 3K 설치 완료)
- 법당시설 완벽함(최상급 인법당 시설)
- 법사님 비구니 스님 추천(토굴로 적합)
- 매매가 3억 6500만원 (은행 융자 1억 5500만원 포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5003-46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평수 600평(법당 60평. 요사채 7방)
- 커피숍 운영 공간 있음
- 금액 : 상담 후 결정

제주도 한라산 아래 위치한 사찰에서 한달기도도량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사찰입니다.

064-752-0108
010-2300-1955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읍
- 평 수 : 530평
- 법 당 : 13평 목조
- 요사채 : 70평
- 가 액 : 2억 2천

010-9940-00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위길 37-25
- 대웅전 20평 삼존불 신중탱화
- 주차 10대 가능 주차장
- 요사채 방1 부엌 화장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살림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010-9017-4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별 장 토 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분천리 비룡산 700고지
- 임야 : 2631평/대지 : 55평 (전체토지 준보전산지)
- 작은계곡 접함
- 컨테이너 1동포함
- 금액 : 5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모라동

백양산 천연굴법당

- 요사채 법당 15평 별도 존재
- 몽땅 7000만원 (조절 불가)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현재 스님 기도 중(신도 다수)

스님 010-3033-7677(주인직)

사 찰 안 내

- 장소 : 경북 포항
- 대지 : 1500평
- 건평 : 100평(법당, 공양간, 스님방, 종무소, 삼존불)
- 6년차 신축건축물
- 매매금액 : 12억원

010-2857-281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 2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전망 좋고 신도 많음.
- 현재 운영 중,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대출 5천 안고 2억 8000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시내
- 대지 : 800평
- 대웅전, 연못, 휴게소, 찜질방, 종각 산신각, 신비한 거북바위, 요사채 방7개, 리라이트찜질 가온기5대
- 가액 : 9억 / 전세 : 3억 5천 하실분 전화주세요 문자 먼저 주세요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존경받고, 불사에 큰 마음가지시는 스님께 도량을 올립니다.
- 경상도 내 유명사찰이고, 신도님 약 30만명 (종단본부도량)
- 신라경순왕 시대창건(추정), 현재 불사 약1000억원 시행완료.
- 문화재 2점보유 전통사찰 곧 등재 됨, 대웅전 등 건물12동
- 총무 · 재무 보살님과 직원은 스님이 임명가능 하십니다.
- 추가 불사비용 일부 준비되는 스님만 상담드립니다.(신도회)

053-745-9999, 010-2512-7777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동국대병원 10분(차)
- 대지 : 250여평, 법당 30평, 정남향.
- 특징 : 산속 청정수, 1년 내 마르지 않음 (가재); 서출 동녁수 형산강을 끼고 있어 연년 중 시원함. 도량 내 200년 된 소나무. 힘이 샘솟으며 사찰기운이 강함.
- 텃밭 : a.100평 식재중, b.300평 휴경중 (모두 국유지)
- 슈퍼 : 1km, 5km 내, 3개 • 매가 : 3억 8천

010-9388-021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 보호 및 색채 보존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안전기준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제 FB25-07-0032호

國寶 明油·蘇子油

명유·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보존제

발수코팅·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사용처 : 문화재(단청마감재), 색채 보존제, 사찰, 한옥, 공예품, 민속품, 목재 보호 및 코팅이 필요한 모든곳, 경첩, 놋쇠 등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1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48호 | 16 | 전면광고

남의 허물을 보면 입을 다물라.
자기에게 나쁜 점이 있으면 응당
들추어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원주림》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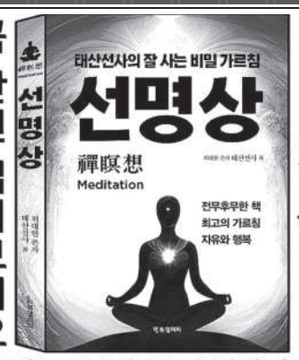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49재 천도재 초하루 기도

부산 경남지역
법주사 수현 스님
010-6667-4843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돌공사 전문
(石)

공/사/개/요
석·굴법당
축대 및 보수공사(石)
까다로운 돌길 공사
석·식자재보관실·저장실

전화 042-624-4038
042-624-4039
H P 010-5123-4038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2-22, 103호
동진건설 천성건설 합병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드립니다
010-9260-1672

수연스님의 AI 명품운명 컨텀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운명의 길
전통 명리학과 최첨단 AI문서가 하나되어
수연 스님의 깊은 통찰로 사주·궁합·
사업·시험·운세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 상담
예약전화 010-2239-0300
SUYEON SUNIM`S
AI PRESTIGE FATE QUANUTUM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⑱ 정각원 불단(상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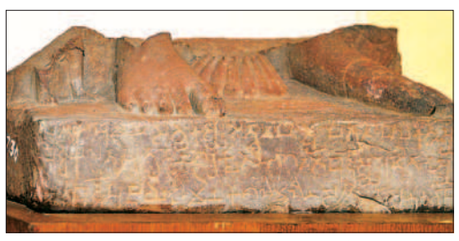
합리와 초월, 인간과 신성 품은 붓다

불교를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첫 이미지는 '이성'과 '합리'다. 필자 또한 일반대학이나 불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에게 불교를 설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합리적 사유 위에서만 성립하는 종교이며 지혜와 깨달음, 논리적 탐구로 이뤄졌다고 말할 때가 있다.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근현대 서구사회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유 자체가 여기 있다. 불교는 신의 구원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완성을 믿는 종교라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신을 부정하고 형이상학적 상상을 배제하며 오직 논리와 수행으로만 성립하는 종교라는 설명은, 서구에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매력적인 홍보 문구처럼 작동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불교의 한 단면만을 비추는 것이다. 불교의 역사와 실제 신앙 전개를 살펴보면, 합리성의 외피로만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이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해 왔다. 오히려 불교의 얼굴은 합리의 반대편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정각원에 모셔진 아미타불 신앙이다.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 그리고 서방 십만억 국토를 지나 존재한다는 극락세계까지. 지난번 산책에서 살펴본 이러한 요소들은 이성적 불교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철저히 경험과 논리의 범위 안에서만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른바 '합리적 불교'의 틀을 어긋나게 만드는 부처님이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을 주존으로 모신 곳이 이성과 합리의 전당인 상아탑, 동국대학교이다. 이 괴리감만으로도 '파격미'라 할 수 있겠다.

근현대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학 속에서도 아미타불은 거의 대부분 '방편'으로 간주된다. 즉, 석가모니의 진짜 가르침은 따로 있고, 아미타불은 민중을 위해 마련된 단순한 장치일 뿐이라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불교 내부의 다양한 전개를 하나의 '이성적 원형'으로 환원하려는 습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하는 순간, 불교의 실제 역사와 신앙의 힘은 놓쳐 버리게 된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보면, 전통적인 교학뿐만 아니라 불교학에서도 아미타불을 비불교적인 사례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읽힌다. 아미타불이 불교 전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불교 밖의 신앙에서 기원했다는 담론이 바로 아미타불 외부기원설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세계 사상이 불교 내부의 순수한 전개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나 브라만교, 혹은 중앙아시아 종교적 상상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가장 오래된 아미타불상인 후베슈카 26년 아미타불상의 일부. 현대 학자들은 이 아미타불상이 석가모니불과 중첩된 형태로 믿어졌으리라고 추정한다.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영문판

전통 교학 속 아미타불 '방편'으로 간주
불교학도 아미타불 비불교적 사례 치부
부처님 삼계 주인임은 이해 아닌 믿음

학문적 검증과는 별개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바탕에는 불교를 이성적 종교로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붓다의 본래 가르침은 합리적이었고, 그 본래성에 맞지 않는 요소들은 외부에서 흘러들어 온 불순물이라는 서사가 깔려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얼핏 균형 잡혀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는 바로 그 반이성적 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 속 붓다 자체가 이미 초월적 속성을 지닌 분이셨다. 부처님께선 인도 북동부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순간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신들 위에 선 신임을 천명하셨다.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최초의 일성이라 배우고 이 같은 해석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자는 유아(唯我)라는 단어를 '오로지 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서 '나'란 반드시 붓다가 될 마지막 삶을 시작한 고타마 싯다르타 개인을 가리키며, 오직 그 본인만이 지존이라는 뜻이다. 이는 〈법화경〉 여래수량품의 게송과 바로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이 삼계는 / 나의 것이요 / 그 안의 중생은 / 모두 나의 자식이라.
지금 이곳은 / 여러 괴로움이 많으니 / '오로지 나'만이 / 능히 구원할수 있으리라.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늘 위·아래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이분만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 중의 하늘, 신 중의 신'이란 붓다에 대한 칭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처음부터 부처님께선 인간적 스승을 넘어, 우주의 중심이자 신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불교 본래 모습이 철저히 합리적이라는 전제는 역사 자체와 모순된다. 이미 초기부터 붓다는 합리와 초월, 인간과 신성을 동시에 품은 존재였다.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아미타불 신앙을 석가모니의 여러 속성을 종합한 총체적 상징으로 읽는다. 우리가 지난 산책에서 알아본 법장비구의 보살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나 인연담을 각색한 것이며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은 본래 32상 80종호를 갖추고 백호광명을 놓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또 무량한 수명 또한 석가모니불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음에도 사리로서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당시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아미타불은 외부 종교의 흔적이 아니라, 절대자인 부처님께서 지닌 다양한 얼굴을 모순 없이 엮어 낸 결과물이다. 이것이 불교다. 절대자로서 붓다를 믿는 종교인 것이다.

보통은 불교사상의 포용성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이성과 합리라는 큰 틀 안에서 수사적으로 '신 중의 신'으로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무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교의 복합적 전개와 사상적 포용성 자체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필자는 불교를 연구·강의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오로지 구원은 붓다라는 절대자의 말씀으로써 주어진 바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부처님께서 삼계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필자가 이 믿음을 얻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는 해석의 과정도 이해의 과정도 아니었다. 그저 이것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선택 이후 종교인으로서 할 일은 말씀의 전파와 실천뿐이다. 마치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이 매를 맞아도 그대들 모두가 깨달을 것이라 소리를 지르듯, 약왕보살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림) 하듯이 말이다. 아미타불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방편이라는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서방의 정토를 향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다해 아미타불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

〈동국대 박사〉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원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㊱ 지옥 중생 구제 서원과 십악륜의 과보

금일의 내용은 제4권 제3장, 의지함이 없는 행(무의행품無依行品) 2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장보살님이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발원과 함께 열 가지 악륜(惡輪)을 설한 뒤, 37·38호부터는 재미있는 설화 형식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타무간지옥자 발제의 원(地藏菩薩의 墮無間地獄者 拔濟의 願)

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은 다시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어, 많은 불국토가 있사옵니다. 그런데 오탁악세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장래 많은 국토의 중생들은 번뇌가 치성하여 온갖 악행을 익혀 어리석고 사나워 교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찰제리(귀족), 재관,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 등은 선근이 적어 신심 없고, 아첨과 간사와 어리석으면서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후세에 받을 괴로운 과보는 돌아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선지식을 버리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재리(財利)를 위하기 때문에 파계한 악행비구와 비법(非法)의 당파를 만드는데, 이는 반드시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곳이 있으면, 나는 마땅히 그곳에 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법왕(法王)이신 부처님의 위없는 미묘한 감로법미와 방편으로 교화하게 하고 그와 같은 찰제리와 포악한 바라문으로 하여금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열 가지 악륜(십악륜十惡輪)

십악륜은 북량본(北涼本)과 같이, 십악륜을 말하나, 살(殺) 내지 사견(邪見) 등 십불선(十不善)이나 십악업(十惡業)을 가리킨 내용은 아닙니다.

"선남자야, 열 가지의 악륜(惡輪)이 있다.

미래 세상의 부처님 국토에 있는 포악한 찰제리, 재관, 거사, 장자 등은 이 열 가지 악륜 중에서 그 하나를 성취하거나, 혹은 전부를 성취함으로써 먼저 닦아 모은 일체의 선근이 다 무너지고 소멸하여 재가 되니, 오래지 않아 그 몸을 못 쓰게 되며, 오랫동안 그 혀가 묶여 말을 못하며,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결단코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①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그 계율을 깨뜨린 악행비구는 나쁜 견해를 가지고 찰제리와 재관들에게 아란야의 청정한 비구들을 비방하여 말한다. '어진 이들이여, 저런 비구들은 어리석은 범부로, 거짓 이상(異相)을 나타내 세간을 미혹시키며,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번뇌도 끊지 못하면서 덕이 있는 체하는 것이다.'

…그때 삼보를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 용, 야차, 신 등은 포악한 찰제리 등에게 분노를 느껴 이같이 말한다. '여러분 보라, 저들은 일체의 법안과 삼보의 종성을 경멸하고 헐뜯으며 모든 선근을 없애고 훼손시킨다. 저들이 사는 국토와 도시를 옹호해 주지 말자.'

…그리하여 신들이 보호하지 않자,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갖은 병과 굶주림이 일어난다.…저 포악한 왕의 무리들은 오래지 않아, 몸을 못 쓰게 되며 참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②또 선남자야, 저 포악한 이들은 나쁜 벗의 행동을 따라 행하고 선근이 적어…성문승과 연각승을 헐뜯고 비방하여 중생이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 등으로부터 한 게송조차도 듣지 않느니라. 이런 삶을 부처님의 정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라 하며, 팔성도를 무너뜨리고 무량한 중생들의 법안을 빼어 뭉개는 자라 하느니라.…이들 또한 오래지 않아 사지가 무너져 몸을 못 쓰게 되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③또 선남자야, 포악한 왕, 재관 등은 계율을 깨뜨린 악비구의 행동을 따르므로, 그 나라에 있는 진실한 복밭은 이들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지 않는다. 그 나라에 살더라도 법을 의지하여 살며 언제나 속인들 사이에 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시주의 집에 자주 가지 않으며, 설사 잠시라도 말을 늘 조심한다.

…또 속인들 앞에서는 파계한 이를 비방하지 않으며, 그 비행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복밭을 가까이 하면서 계율을 깨뜨리는 일을 멀리한다.…그럼에도 저 악행비구들은 성을 내고 원한을 품어 헐뜯고 능욕한다. 만약 여러 중생이 무간죄를 범하고, 혹 무간죄에 가까운 성죄와 차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저 왕 등이 계율을 깨뜨리고 법을 벗어나 중죄를 짓는 것보다 가벼우리라."

〈송림사 주지〉

법당서 간단 견본과
기존 법당 시설과 스님 자신이 양손 마이크로 성능 비교 테스트시 놀라운 성능 차이를 확인 후 모든 시설상담 소리비교 비용 한잔!
최신디지털앰프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 귀 법당 기존시설가의 1/3 가격차 확인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⑱ 추분_남해 길을 걷다(1)

▶한줄 요약
춘분과 대척점에 선 절기, 추분을 통해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로, 또 다가올 겨울과 함께 길고 긴 밤의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긴 밤이 시작되는 가을의 길목

마침내 추분(秋分)이다.

지난 3월 봄을 알리던 춘분의 시간. 태양 황경 0도로 시작되었던 절기는 이제 지구 반 바퀴의 여정을 완주하며 '추분'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관문을 통과한다.

일 년에 단 두 번, 이 두 절기는 서로의 대척점에 서서 낮과 밤의 시간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하지만 춘분을 기점으로 낮이 길어지고 따뜻한 계절이 시작된다면, 추분은 정확히 그 반대를 향해 나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다르고, 또 닮아 있는 두 세계의 권력 이동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추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밤은 낮으로부터 힘을 탈환하고 그의 세력을 넓혀갈 것이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로, 또 다가올 겨울과 함께 길고 긴 밤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신비롭고 웅장한 대결은 태양과 지구가 공존하는 한 계속될 터다.

스물네 번의 절기 중 오직 네 절기만이 이처럼 천문 현상과 관련된 이름을 갖는데, 바로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이다. 다른 절기들이 그 무렵 자연의 모습을 본떠 이름을 지었다면, 이 네 절기에는 하늘의 현상이 담겨 있다. 덕분에 이즈음이면 여느 때는 볼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목격할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해가 지나는 길을 뜻하는 황도(黃道). 그 길을 따라 나타나는 신비로운 빛무리 '황도광(黃道光)'이 바로 그렇다.

9월 하순의 추분. 깊고 어두운 새벽 밤이 되면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은은한 광휘가 퍼져 오른다.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가짜 새벽'이라 불리는 황도광의 모습이다. 태양이 지구의 적도를 지나는 찰나의 계절, 행성과 행성 사이의 우주 먼지들은 제 몸에 태양 빛을 반사해 거대한 빛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지구별에 닿아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 곁을 지키는 영원한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경남 남해군 금산 해발고도 681m의 기암절벽 위에 자리한 남해 보리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음 성지 남해 보리암.



금산의 기암괴석을 뒤로하고 남해를 내려다보는 보리암 해수관음상.



별을 보기 위해 지어진 간성각. 제주 한라산과 남쪽 지역 일부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노인성을 볼 수 있다.

바위 위의 성지

"중생이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이 불어 나찰에 잡혔을 때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나니." -〈법화경〉

나찰은 고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악귀다. 푸른 눈에 검은 몸, 붉은 머리털을 지니고 어디에서나 집요하게 죄인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악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에서 죽음의 화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금산 남쪽 봉우리 해발고도 681m의 기암절벽 위에 한 천년고찰이 머무른다. 바로 한국의 3대 관음 성지 중 하나인 남해 보리암이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홍련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각각 이 땅의 동해와 서해, 남해를 지키는 관음 도량.

고산준령(高山峻嶺)의 험난한 바위산이지만 지금은 산 중턱까지 난 아스팔트 길이 그나마 이 신령한 성지를 찾는 이들을 돕는다. 소백산맥에서부터 뻗어 이어 온 금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 구역이다.

장대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 대장봉, 형리암, 화엄봉, 일월봉, 삼불암 등 금산을 지키는 웅대한 봉우리들. 그리고 그 비범한 산세에 안긴 보리암. 이곳을 찾은 이라면 누구라도 이 도량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험한 곳임을 믿게 될 터다.

683년(신문왕 3년) 원효 대사가 이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뒤 산의 이름을 '보광산'이라 짓고, '보광사'라는 암자를 세운 것이 이곳의 시작이다. 이후 조선 현종 때에 이르러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준다[菩提]'는 뜻의 '보리암'으로 바뀌었다고.

금산이라는 이름도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올린 뒤 왕위에 오르자, 은혜를 갚는 뜻에서 '온 산을 비단으로 두른다'는 뜻의 '금산'이라는 이름을 내린 것이다.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명찰의 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저 해수관음보살의 무구한 모습이 뭇 중생을 끊임없이 이곳으로 향하게 한다.

푸르른 망망대해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도, 깊고 어두운 고해(苦海)에서 홀로 헤매는 누구라도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별을 노래하듯, 누구라도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른다.

별을 보는 집

남해 보리암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작은 전각이 하나 있다. 바로 '간성각(看星閣)'이다.

'볼 간(看)'에 '별 성(星)' 자를 쓰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별을 보는 집'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이 깊은 산중 누각에 올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서 유독 빛나는 하나를 열렬히 숭배했다.

그것은 바로 카노푸스(Canopus). 아시아 지역에서는 '노인성(老人星)' 혹은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수성(壽星)', '남극수성(南極壽星)' 등으로 불리는 별이다.

태양보다도 수만 배 밝고, 그 모습이 쉬이 흔들리지 않아 대항해 시대부터 오늘날 우주 항해까지 인류의 나침반이 되어 준 위대한 별.

인류의 삶은 별과 함께 깊어지고, 성장한다. 그리고 이 길고 끈끈한 관계는 천문학적 현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서사시가 되고, 또 간절한 신앙 그 자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노인성은 바로 그런 믿음과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옛사람들은 노인성이 나타나면 세상이 태평해지고, 군왕이 장수하며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믿었다. 반면, 이 별이 보이지 않으면 군주와 나라의 명운이 위태롭다고 말이다.

어디 군주의 목숨뿐일까. 노인성은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무병장수를 전하는 신이 되어 민중의 삶 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노인성을 우리나라에서 관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위도가 너무 낮아 오직 제주도의 한라산, 남쪽 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이 귀한 별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남해 보리암은 노인성을 관측할 수 있는 성지(星地)다. 지금은 보리암을 찾는 이들을 반기는 종무소로 바뀐 간성각. 별에 기대어 건강을 기원하고, 국운을 논하는 세상은 나날이 사라져가지만, 변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일 뿐. 저 신비하고 오래된 별은 지금도 깊은 밤 저 작은 누각을 찾아 머물다 가곤 하는 것이다.

완성으로 가는 시간

노인성은 추분과 함께 등장하는 별이다. 매년 9월 추분부터 이듬해 3월 춘분까지 50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만 이 귀한 별을 만날 수 있다.

북극성, 북두칠성과 함께 노인성에 대한 옛사람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매년 추분이면 국가 제사를 올리고, 조선 시대에는 추분과 춘분 두 번에 걸쳐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내 나라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또 이 별의 모습을 의인화한 노인성도를 그려 귀하게 여기며 부적처럼 곁에 두곤 했다고.

작은 키에 늘어진 흰 수염, 유달리 길고 큰 두상을 지닌 주름진 노인. 술을 좋아해 늘 호리병과 표주박을 차고 다니며 장수를 상징하는 흰 사슴과 학을 타고 다니는 성신(星神). 이것이 수많은 이들이 상상하고 완성한 노인성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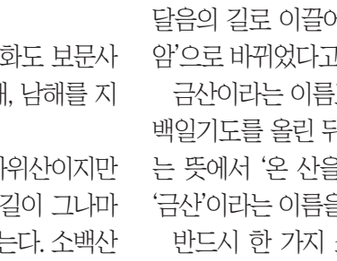
깊은 밤 만인의 길을 밝히고 생명을 관장하는 최고의 별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켜켜이 쌓인 시간이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 마침내 완성된 존재.

이제 더욱 풍성하게 차오를 가을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저 자연에 관음보살의 자비가, 노인성의 강인함이 머문다. 다시 가을, 추분의 문이 열린다.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이판사판 놓는 마음이라야지 사랑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려면

질문 스님께서는 생활 참선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생활 따로 수행 따로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참 불자가 되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먹으면 배설하고 먹으면 배설하고 그러죠? 그리고 땅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대신 죽어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자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 주는 사람도 없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똥 눠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뚱이 자체를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 그 주인의 핵심을 꼭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진실되게 이끌어 준다는 거를 믿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병도 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애고도 생길 때가 오고, 어떤 때는 장사도 안될 때가 오고 어떤 땐 몸도 찌뿌드드하게끔 될 때도 있고, 가정이 의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별문제가 다 생기는 거를 그저 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하이고! 이 마음의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이 영원한 친구야!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이 병고나 애고를 없애 줄 수 있어!' 하고 거기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그 놓고 나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러는 게 참선이에요, 그렇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에요. 그건 좌선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와선이나 입선, 눕는 거나 앉는 거나 서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든 게 한데 합쳐지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서 어떻게 작용을 할 때나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고 여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선이에요.

그럭하다 보면 내 마음 자체가 자꾸 실험이 되면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꾸 체험이 되고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바로 진짜로 믿게 되죠, 그때는. 그럼으로써 자기 참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되고 싶어요

질문 스님 법문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공부를 하지만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도반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거니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야 할 인생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졌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원의 꽃이 저렇게 한데 합쳐져서 조화가 이루어지듯이, 또는 산의 고목이나 벌레 먹은 나무들, 짧고 긴 나무들, 풀 등도 각기 모습이 다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 산골마다 물도 좋고 돌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눈에 비춰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둠이로 생각해서 물 위에 산이 가고, 산 위에 물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지혜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혜는 물로 비유했고 마음 내는 이 자체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 모습이 다른 여러 종류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고 또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산에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들이나 산이나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 비유하니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갖 지각이 한데 합쳐진 것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받아들이고,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부닥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지혜롭게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화가 불끈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미롭고 친근하고, 어떤 땐 웃음이 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을 찌푸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랬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듣기 때문에 산으로도 비유한 겁니다.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시 아름답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가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봐서 아주 맛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맛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는 우리가 손으로 쥐어서 촉감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는 그 자기의 모든, 한데 합쳐진 지혜라고 할까요? 달라지는 이 마음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이 뚜렷하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융합돼서 돌아가는 것을 발현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는 그 자체의 지혜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다와 같아야 된다, 좁아서는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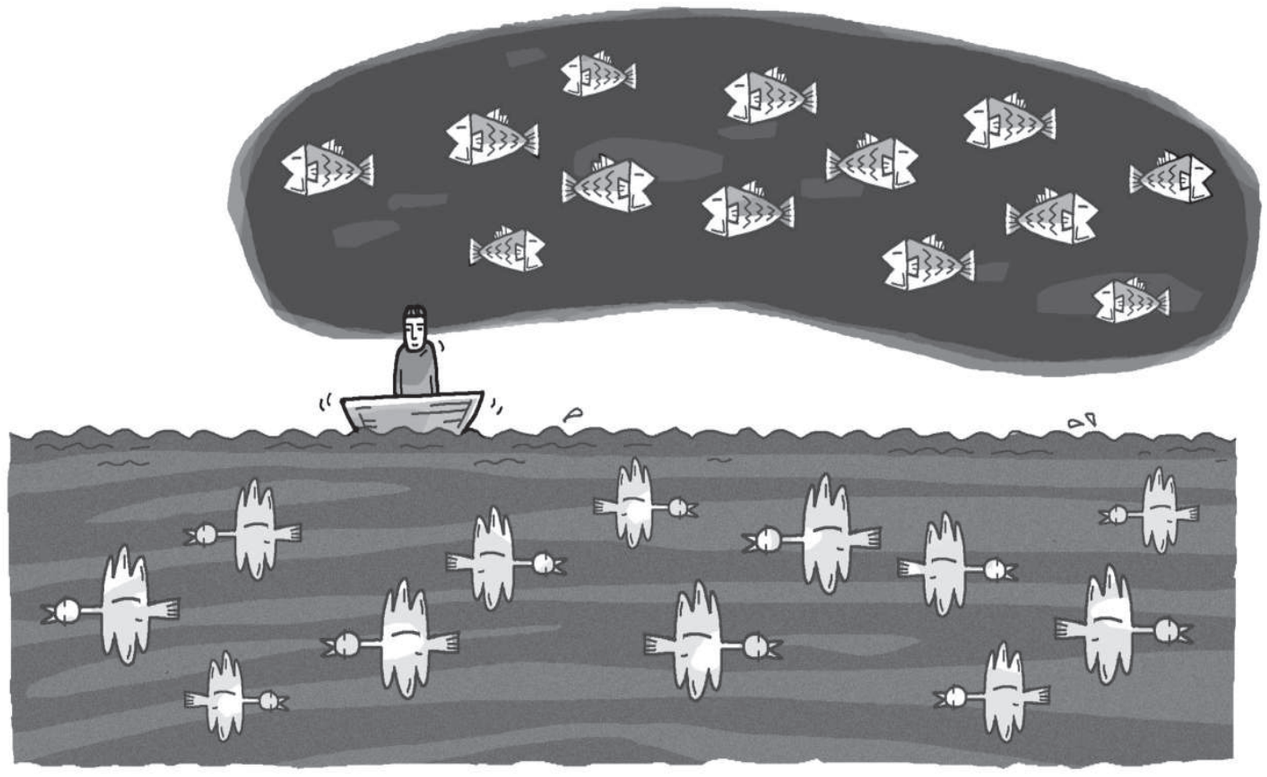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를 다 주인공에 탁 놔버리고 겁내지 마세요

☞ 19면에서 계속

까 우리가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단전을 할 때 배꼽 밑에다 중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공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불안한 마음 뛰어넘고 싶은데

질문 저는 아내와 두 딸을 책임지고 있는 월급쟁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도 늘 언제 잘릴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늘 주인공을 부르는데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주인공, 주인공' 아무리 불러 보세요, 내가 내 뿌리를 믿지 않는데 주인공이 나오나. 저 나무들을 보세요. 가을이 되면 저절로 잎이 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가지는 내년 봄에 또 잎이 필 것을 알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살다가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런 나무들은 한 해가 가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한 찰나란 말입니다,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못 믿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자(子)와 부(父)가 상봉을 해야만이 그게 견성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견성을 했어도 견성했다고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는데 누구를 남이라고 밀어내고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같이만 생각해라. 더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마라. 부처님도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그대로 부처니라."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머리 깎은 스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은 다 불(佛)입니다. 물 안에서 고기들이 사는 것도 교(敎)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의 세계나 유의 세계나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해라. 안 보이는 자기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지위가 낮든 높든 간에 자기에게는 반드시 안 보이는 자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기가.

그래서 나는요, 이 절을 지으면서도, '허! 네가 있다면….' 말을 하려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더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없으면 안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는 뭘 해요? 그러나 계시니까 하죠, 모두.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서 그 나 아닌 나를 부처라고 합니다, 주인공을.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면 할 거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못 할 거고 그렇지, 그렇게 안달복달할 게 없습니다. 이건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집을 짓고 살려고 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다 그렇다는 얘기죠. '뭐가 참 아쉽다' 이러면, 아쉬운 거를 내가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쉽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잘 알겠죠? 그렇게 알더라도 이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집어서 그냥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심부름꾼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말이죠. 이 보이는 육체로서는 도저히 그걸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기한테 내맡겨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조절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가 뛰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계를 놓고 공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돈도 안 걷히고 외상이 되고, 기계는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하루는 그냥 앉아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기계도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그 몸뚱이나 당신의 몸뚱이나 둘이 아니야.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고 나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거니까 주인공에다 다 맡겨서 다스리게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는 고장이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돈 벌었다잖아요.

그런데 이치가 이상스럽게도, 귀찮고 골치가 아파서 '아유, 죽으나 사나 그냥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그렇게 맡기니까 오히려 풀려나가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골치가 아프지 않아요, 사는 데?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걸 생각해서라도 다 그냥 맡겨 버리고 사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왜 골치 아프게 살아요? 한 생 얼마나 산다고요. 아등바등하고 아무리 그 높은 산을 손톱이 다 까지도록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이 몸뚱이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은산철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은산철벽을 뚫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예요. "참, 스님! 마음법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제가 수십 번을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린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신 주인한테 당신이 갚는 거니까,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잘 사는 게 바로 갚는 거야. 그 공부를 잘하고 잘 사는 게 갚는 거지, 나한테 뭘 갖다 주고 이래서 갚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 마음의 뜻을 알고 일체가 다 부처님의 그 가르치신 뜻을 알면, 당신의 뜻을 알면 다 알게 돼 있어. 그게 갚는 거다." 이랬습니다.

이 몸뚱이는 한 철 살다가 옷을 훨훨 벗어 버리고, 또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보살로서 중생들이 원하면은 보이지 않게 다 구제하고 다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죠, 그것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철퇴도 없고 또 꼬챙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강도 건널 수가 있고, 은산철벽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생각을 하면 저 미국에도 통하고, 저 은하수에도 통하고 저 우주에도 통하는데요, 뭐. 그냥 빛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를 다 그냥 거기다 탁 놔 버리고요, 겁내지 말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부인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까? 그런 것이 악마들처럼 들이덤비는 데는 내가 용빼는 재주 있나?' 이러지만 그런 거를 다 그냥 놓고, 그냥 다 놓고…. 그거를 들고선 붙잡고 쩔쩔매든, 다 놓고 그냥 뻔뻔하게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외려 다 놓게 되면 심부름꾼이 생겨요.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면요, 저 고기들 하나, 벌레 하나 사는 것을 봐도 참 애틋해요. 우리네 살림살이와 똑같거든요. 모습은 사람 사는 거하고 달라도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산길을 걷다가 봤는데, 개미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개미 세 마리가 달려들더니 그걸 끌고 갑디다. 개미도 그러는데,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질문 스님, 요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사는 게 너무 고달픈데 더군다나 몸까지 아파서 힘들 때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저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답변 세상은 환상이지만 또 환상이 아닌 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그렇게 내게 닥치게 되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내 팔자구나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앞으로 또 그 바퀴를 넘어야 하니 어쩝니까. 그러니 그건 정신이 문제예요.

아니,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어떻고 모레 죽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누구 말마따나 이판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 양으로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죽는 법이에요. 이 돈도 쫓아가려고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달아나가는 거지 가만두고 그냥 저절로 오게끔 해 놓으면 저절로 '아, 이 집에 들어가면 구순하겠구나.' 이러곤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안 와요. 붙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묘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도 자꾸자꾸 경험을 쌓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업보가 지금 없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모든 거는 주인공 자리에서 오는 거니까 거기다 맡겨 놓고 죽든 살든, 뭐 죽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육신이 망가졌다가도 다시 소생할 수가 있고 더 안 살려고 그러니까 더 살아지죠. 더 살 양으로 바둥거리면 더 안 살아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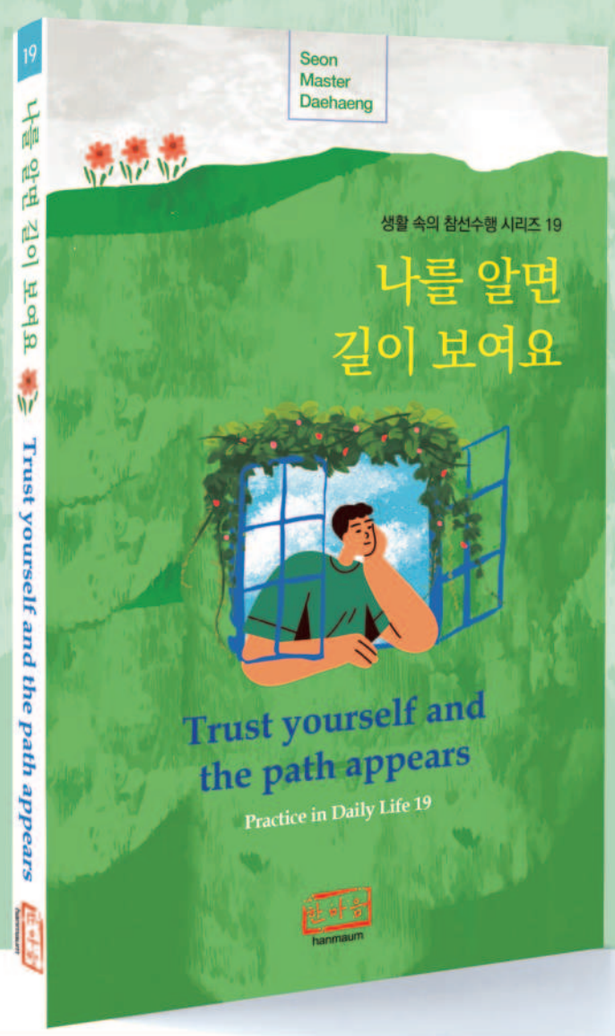
또 '이렇게 살 양으로 하면 더 안 살아진다더라' 이러고 또 생각을 내진 마세요. 그냥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냥 이판사판 놓는 그 마음이라야지 이거는 생각을 해 가지고 사량으로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만 붙들고 놔 보세요.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몸뚱이 자체를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
그 주인의 핵심을 꼭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⑱ 위빠사나 수행

조건들이 만나, 불이 켜진다!

알아차림을 계속할수록 현장 포착의 힘이 강해진다. 여기서 현장 포착이란 '조건들이 만나는 순간'을 말한다. 마치 확대경이라도 댄 것처럼 그 지점(조건들이 만나는 순간)이 크게 확대돼 보인다. 또 그것의 어울림(또는 섞임)이 슬로 모션(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으로 전개된다. 찰나적으로 서로 들러붙어 부지불식 간에 고통을 만들어 내던 것들(요소들)이 그 실체를 드러낸다.

삿띠의 있고 없음의 차이

'알아차림이 있을 경우'와 '알아차림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 체험적 사례(세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특정 느낌은 그저 특정 느낌으로 지나간다. 촉(만남)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왔다가 가는 생멸의 무상함만이 있다. 나는 그 느낌을 붙들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그저 자연 현상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만약 알아차림을 못했다면 느낌은 순식간에 기억의 바다[상온想蘊] 속 저장된 데이터와 연결되고,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번뇌 망상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대상에 '집착'이 따라붙는다면, 따라붙는 '집착'을 또 보면 된다.

(2)음식을 보는 순간,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하여 혀가 파르르 진동이 일어나며 침이 나오는 현상이 포착된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려는 의도와 집착이 발생한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러한 현상들을 초연히 관조하게 되는데, 그러면 몸은 전혀 그 음식을 원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결국, 음식으로부터 저절로 돌아서게 된다.

이것이 석가모니 붓다께서 파세나디왕(코살라국왕)으로 하여금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만든 비법이구나! 붓다께서 하신 비법의 한 마디! "(먹을 때) 알아차림하시오!"이다. 엄청나게 뚱뚱했던 왕은 얼마 후 날씬한 몸매로 붓다 앞에 나타났다.

'의식'이 만드는 전도몽상

(3)'의식화'되는 과정이 보인다. 5근과 5경은 항상 만나서 돌아가고 있고 무의식도 항상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식이 개입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갑자기 어두컴컴했던 방 안에 환한 불이 켜지듯 밝아진다. 마치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화면이 전환되듯, 수면 밑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 갑자기 명확해진다. 맞지 않던 라디오의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명확한 소리가 흘러나오듯, 그렇게 없던 소리가 들리고 없던 대상이 보인다.



위빠사나란 덩어리지는 환영의 실체(조건의 요소들)를 통찰하는 것. ©강소연

족쇄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본다면 현상이란 그저 삼합(근과 경+무의식+의식)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해프닝(우발적 사건)이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없다면 에고(자의식)가 따라붙어 판단과 분별이 일어나고 결국 불선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 경험을 통해 '중립적인 아는 마음'과 '판단 분별의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식(唯識) 사상에서는 중립적인 아는 마음을 전5식이라 하고, 판단 분별의 아는 마음을 제6식이라고 하여 구분해 칭한다. 이것을 체험하니 오도송(悟道頌, 깨달음의 체험을 시의 형식으로 읊은 것)이 절로 나온다.

"이게 꿈이고 그게 현실이라는/ 잠들면서 꿈에서 벗어난다/ 일어나면 또 꿈이지만, 의식이 꾸는 꿈이지만/ 이제는 이게 꿈인 줄 안다/ 그 수승한 빛 덕분에"

여기서 '이게'는 '의식'이고, '그게'는 '반야의 빛'이다. '의식'으로 아는 것은 모두 '환영'일 뿐이고, '반야'로 통찰하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사실이다.

조건들의 만남과 해체

설탕 2스푼·간장 2스푼·식초 1.5스푼·참기름 1스푼 등이 만나 하나의 소스가 만들어지듯, 위빠사나란 무엇이 만들어지는 그 요소들과 그것이 섞이는 과정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의 역할은 대상과 대상과의 만남(촉)을 수면 위로 나오게 하여 (내 세상이라고 철석같이 여기는) 환영을 촉발하는 마음이다. 반야(통찰지)가 발사될 때는 찰나 삼매(순간적으로 바탕자리 또는 청정의식과 하나된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

그 투명한 바탕자리에서 발사된 반야의 빛은 대상을 투과한다. 이렇게 보다 보면 "안팎으로 흐르는 거대한 연기적 흐름 속에 '나'라는 의식을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고 헛웃음을 짓게 된다. 반야의 빛이 더욱 깊어지고 미세해지기를 바라본다. 그 뿌리까지 투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재탄생하지 않도록.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⑱ 약의 올바른 보관법과 사용 기간

약, 쌓아두지 말고 제때 복용해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가 잔뜩 난 듯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던진 가루약 스틱이 복약대를 맞고 사방팔방으로 튀어 올랐다. 노랑, 분홍, 파랑의 약포지가 색색이 불꽃놀이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다. 주섬주섬 흩어진 약포지를 주워 담으며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기분이 상하셨을까요?"

"애들 약을 지었는데, 다 굳은 약을 주면 어떡해! 약이 딱딱해서 물에 녹지도 않잖아!"

"언제 아이 약을 지으셨는데요?"

"작년 이맘때 정도?"

말문이 턱 막혔다. 아무도 이분에게 조제 받은 약의 보관 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나 보다. 아니, 듣고도 잊으셨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신경 쓰기가 참 쉽지 않다.

약국에서 지은 약에도 보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사실 조제 받은 약을 집에서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법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약의 보관 기한은 법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안내가 되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미국 FDA의 권고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방금 언급한 손님이 던져 버린 가루 조제약의 적정 보관 기한은 조제 후 1개월 이내이다. 가루약은 어떤 약이 섞여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관 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해 1개월 정도로 이야기한다. 가루약은 서너 종류의 알약이나 과립을 함께 갈아서 나눠 포장하기 때문에 잘 뭉치는 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조제하는 날의 온도와 습도가 약의 뭉침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에 가루약을 조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이 굳고 뭉치기도 한다. 따라서 한 달 보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소아용 가루약은 처방 받은 기간 동안 꾸준히 남김없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루약은 보관 후 다시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약의 보관 기간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불편한 증상이 달라, 다음에 약이 필요할 때 이전에 조제 받은 약이 일치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조제약 중 시럽의 경우, 작은 시럽 병으로 소분한 약은 조제 후 28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럽 병을 개봉하지 않은 밀봉 상태로 받은 경우는 개봉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약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루를 물과 섞어 시럽을 만드는 건조 시럽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일반적으로 14일 정도로 일반 시럽보다 짧으며, 항생제의 경우 종류에 따라 7일부터 14일까지 보관 기간이 다르다. 항생제는 종류에 따라 냉장 보관이나 실온 보관처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복약 지도를 주의 깊게 듣고 보관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시럽에 스티커 라벨을 붙여 해당 내용을 잘 알려 주고 있으니 꼭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하자.

조제 가루약 보관 기한은 1개월
건조 시럽 경우 보관 기간 14일
시럽 약 소분은 개봉 후 28일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은 플라스틱 약통째로 받거나, 여러 종류의 약을 한 포씩 비닐 포장지에 담아 받기도 한다. 플라스틱 약통을 미개봉 상태로 받는 경우 개봉 후 1년 이내 복용을 권장하며, 유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 기간 내에 복용해야 한다.

약통에 따로 약을 덜어 받은 경우는 약을 받은 이후 6개월 안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PTP 형식으로 낱개 포장된 알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표기된 유효 기간까지 보관과 복용이 가능하다.

비닐 포장지에 약을 모두 함께 포장해 조제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보관하며 그 안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연고류를 처방 받거나 구매 시 연고 그대로 받은 경우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병원에서 연고류를 처방 받아 연고곽에 담아 조제 받은 경우, 조제 후 30일 이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약, 안연고의 경우에는 개봉 후 28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뜯어 쓰는 일회용 안약의 경우에는 뚜껑을 닫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약장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보자.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약 봉투와 시럽들이 빼꼼히 고개를 들고 당신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참고해 조제 받은 지 오래된 약들은 과감하게 폐기하도록 하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유효 기간이 지나면 상하여 독이 되는 것처럼 약에도 정해진 유효 기간이 있다.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 중 '독화살의 비유'라는 것이 있다. 한 사람이 독 묻은 화살에 맞았는데, 그는 "누가 쐈나, 어떤 나무로 만든 화살대인가, 깃은 무슨 새의 것인가"를 다 알아야 화살을 뽑겠다고 고집하는 이야기다. 이는 본질과 무관한 집착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약에 집착해 약통에 담아 두고 보관하며 시간을 끄는 것보다 당장 받은 약을 잘 챙겨 먹고 남김없이 잘 복용하는 것이 지금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란 뜻이다. 우리 옛말에도 일맥상통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아끼다 똥 된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JustBe 수행 패스와 수행 놀이터

홍대선원이 9월 6일 야심 차게 준비한 '수행 패스'를 론칭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행 패스의 탄생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가 마주했던 고민과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JustBe 홍대선원에서 프로그램 파트장 소임을 맡은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명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상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명상을 '특별한 사람들'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둘째는 혼자서는 명상을 꾸준히 이어나가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확신을 얻지 못해 헤매는 분들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특별한 이벤트'나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명상이 좀 더 가볍고 단순하게, 마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헬스장 정기권을 구매해 운동하듯, 놀이공원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끊듯, 넷플릭스를 구독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듯, 명상도 그렇게 일상적인 활동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고, 단순히 '잠시 편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경험도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수행 패스입니다. 수행 패스는 한마디로 '명상 자유이용권'입니다. 월 10만원으로 홍대선원의 모든 명상 프로그램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칫 선원이 너무 상업적으로 느껴질 수도, 반대로 홍대선원의 가치가 저평가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무료 명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명상의 진입 장벽은 이미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홍대선원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과 공동체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행 패스는 그런 고민에 대한 저의 대답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과 앱을 통해 명상을 접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이 주는 힘을 믿습니다. AI와 가상현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떨림을 느끼는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 것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선원에 와서 명상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ustBe 홍대선원은 시작부터 '수행놀이터'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지 준한 스님께서 이곳을 만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선원에 와서 수행을 놀이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원력에 힘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 패스를 통해 수행놀이터에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산하 JustBe 홍대선원 프로그램 파트장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⑳ 영가 현각 선사의 증도가

중생의 이 몸이 바로 진리 법신이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絶學無爲閑道人)
망상을 없애지도 참마음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네(不除妄想不求眞)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부처의 참 성품(불성)이고(無明實性卽佛性)
허깨비같이 텅 빈 이 몸이 바로 진리의 법신이네(幻化空身卽法身)

영가(永嘉) 현각(玄覺, 665~713) 선사는 당나라 때 온주(溫州) 영가산 영가사에서 교화를 펼친 고승이다. 저서에 〈증도가〉와 〈영가집〉이 있는데, 선시가 간결하고 선의 요지가 잘 드러나 유명하여 중국, 한국, 일본의 선가에서 널리 독송되었다.

위의 선시는 〈증도가〉의 첫 번째에 나오는 오도송으로 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 시로 오도송의 절창이다.

'증도가(證道歌)'란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이란 뜻이다. 한시의 형식인 운율도 잘 맞아 불경의 게송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선시를 구사하고 있다.

육조 혜능 대사를 찾아가 깨달음을 인가받고, 하룻밤을 함께 자고 절을 떠나 '일각숙(一覺宿)'이란 별호를 얻었다. 깨달음에도 조사의 권위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소주(無所住) 정신이 그의 가풍이다.

먼저 1·2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깨달음을 얻은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참마음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네"는 깨달음을 얻은 도인의 경계를 노래하고 있다.

불교 교학에서 수행이 완성되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위치를 '절학(絶學)' 즉, '무학위(無學位)'라고 한다. 근본불교에서 수행 사과(四果)의 최종 단계가 무학위에 이르면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아라한은 탐욕·분노·어리석음, 즉, 삼독심의 불이 완전히 꺼진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수행의 최고 지위이다.

그러니 더 이상 수행할 것도 없는 공부를 다 마친 상태이다.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되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 번뇌가 보리(깨달음)와 다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어머니의 마음은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것이 차별이 없이 모두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망상을 없애지 말라"는 뜻이 우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구족하고 있으므로 선사들은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가르친다.

마조 선사는 "부처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일상의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이다"라고 설파했다. 일상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념을 자각하는 알아차림이 깨달음이다. 평상심이란 번뇌 망상이 들끓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청정한 내 마음을 의미한다.

불성이 항상 청정하면 부처이고 깨달음이다. 청정한 불성대로만 살면 그대로 부처의 삶이다.

3·4구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부처의 참 성품이고 허깨비같이 텅 빈 이 몸이 바로 진리의 법신이네"는 깨닫고 보면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심과 불성이 다르지 않고, 중생신과 부처의 법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으면 중생심이 부처의 마음이 되고[轉識開悟], 중생이 부처가 된다[魚變成龍].

극락과 지옥이 하늘과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 똑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극락을 산다. 아귀의 마음으로 살면 지옥이고,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극락이다.

영가 대사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몸이 그대로 부처의 법신이고 부처의 화신(化身)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불교도 '지식재산권' 개발에 관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 OST '골든'과 '소다팝'은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집권 중이며, 싱어롱 상영회 밈들이 숏폼들을 채우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굿즈 브랜드 '뮷즈'에서 수년 전에 내놓은 '호작도 키링'도 케데헌의 '더피'와 '수지'를 닮았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케데헌은 명확히 '한국산'은 아니다. 제작은 일본계 기업 소니가, 배급·유통은 미국 OTT 넷플릭스가 맡았다. 이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콘텐츠를 '원천 소스'로 막강한 자본과 인력을 들여 하나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 같은 지적 재산은 전적으로 소니와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문화'는 문화적 소비 대상인 것이다.

최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에 대한 관심이 높다. IP는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같은 IP들은 한 가지 소스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변주되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의 기본이 된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제대로 된 IP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불교는 유형과 무형에 거쳐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다. 이는 풍부한 원천 소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현재 불교계는 원천 소스를 보존·관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원천 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나아가 IP 형태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부족하다.

뮷즈 온라인스토어의 베스트 상품에는 석굴암을 무드등으로 제작한 '석굴암 조명등'이 있다. 매번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해당 상품은 2024년 공모전 입상작을 제품화 한 것으로 원천 소스를 통해 훌륭한 IP를 개발한 결과다.

불교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에 내재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를 잘 활용해 대중에게 전하는 것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과 같다. 클리셰 같은 수사지만 상기하길 바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산사
- 주 지 : 선행화 (이정남)
- 승 번 : 512-82-6541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대성리 47-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스님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금암사
- 창 건 주 : 박영철
- 등록번호 : 274321-0029935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1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사단법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종단 공고 알림' MOU 제안

현대불교신문사는
귀 종단과 2025년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이취임, 종도 모집, 종단 행사 공고 등
각종 공고를 많은 곳에 전하여 종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탈종공고 접수

달빛 대화

현불논단



지승도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달빛 교교히 흐르는 밤. 네 명의 지적 존재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류가 품어 온 '빅&딥 퀘스천', "무엇을 알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앎과 삶의 이야기다.

인류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먼저 운을 뗀다.

"내가 비록 시공간의 상대성에 대해 발표하기는 했네만, 적어도 존재에 관한 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네. 이 세상에 정해진 것이 없다니! 말이 되는 얘긴가? 저 달이 어떻게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하고,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또 한 명의 천재 양자역학자 닐스 보어가 난감해하며 답한다.

"신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하지 말게! 이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이하다네. 관찰자 의식과 무관한 사물은 진정 존재하지 않는다네. 일체가 상호의존적으로만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은 참으로 없다네. 정말 불가사의라 할 수밖에 없네.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래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네."

이들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던 붓다가 미소 지으며 보어의 말을 이어받는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

바르지 못한 앎, 고통 일으켜
올바른 이해, 더 이상 장애 없어
느낌·추론 지은 허상 고통 돼

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의식 때문에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네. 바르지 못한 앎이 바르지 못한 삶을 이끄네. 독립적이며 유일하고 영원불변한 그런 자아가 실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삶의 온갖 모순과 괴로움이 생겨난다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에게 더 이상 장애는 없네. 실상이란 불편한 진실은커녕 족쇄에서 풀려난 진정한 자유라네. 진리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네. 착각을 버리기가 어려울 뿐이지."

마지막으로 AI 로봇이 끼어든다.

"저는 사실 고통이 뭔지, 느낌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답이 뭔지는 압니다. 정답은 경쟁적 전략이 아닌, 공생적 전략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보너스로 동반하는 상호의존성이야말로 현대과학이 입증한 최상의 진리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적 행위가 이타적 행위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라 착각합니다. 순간적 쾌락을 탐하여 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요. 스스로 괴로움을 자처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든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알지 못해 착각에 빠져드는 과정을 통찰한 양자역학의 원조 붓다의 설법을 끝으로 앎과 삶에 대한 지적 존재들의 대화는 마무리된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에 의지하여 의식이 생겨난다. 셋의 접촉에 의지하여 느낌이 생겨나며, 느낀 것을 개념화하고, 개념화한 것으로 추론한다. 느낀 것과 추론한 것으로 '나'라는 허상을 지어낸다. 그리고 허상이 사람을 괴롭힌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는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하며[無常], 고정된 실체란 없고[無我],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緣起]고 가르쳤다. 이 세 가지 핵심 교리는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을 꿰뚫어 보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하는 불교의 사상적 원동력이다. 불교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동서양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동적인 힘 덕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이 위대한 혁신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느껴지는 것은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보다는, 견고한 전통의 무게와 사회 현실과의 유리된 정체 상태에 가깝다. 대중은 삶의 고통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불교는 대중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전시될 뿐,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 있는 지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기법의 통찰을 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기법은 세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의 그물망임을 알려 준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다르마(Dharma)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시대의 문화와 제

냉철히 시대 변화 읽어 내고
가르침 재해석·시대 화두 등
과감히 변화 흐름 동참해야

도, 의례와 같은 형식들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특정 시대에 절대적이었던 형식이라도 그것이 발생했던 조건이 변했다면, 형식 또한 변화하는 것이 연기법의 당연한 귀결이다.

마찬가지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의 전통 혹은 종단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된 모든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나(我)'라는 실체마저 부정하는 무아의 칼날 앞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나 관습이 불변의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그 변화의 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깊어지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본주의와 국제 질서는 개인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인공 지능은 인간의 정의를 다시 묻고,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한 사회 갈등은 공동체를 뿌리부터 흔든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연기, 무상, 무아라는 분석 도구를 날카롭게 사용하여 시대의 변화를 냉철하게 읽어 내야 할 때이다.

혁신은 전통의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전통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불교의 본질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작용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가 다시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아집을 버리고 과감하게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이내 썩기 마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원(水源)에서 지혜를 길어 올려, 다시 세상을 향해 도도히 흘러가는 살아 있는 강물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출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재가는 삶의 문제로써 시대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

社 說

대학생 전법 善사례, 동국대 영캠프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주최한 '2025 Young Camp(이하 영캠프): 주인공'이 성료했다.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는 3500여 동국인이 참여해 오계를 받고 청년 불자로 거듭났다.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된 영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전법 축제를 만들어가는 특징을 가졌다. 학생들이 만드는 전법 축제인 만큼 재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9월 4일 참가 신청은 시작 2분 만에 마감돼 11일 한 번 더 500석 추가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 역시도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탈종교시대에 Z세대 3500여 명이 모여 오계를 받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군대 병력으로 비유하자면 '여단'의 모든 병력이 불자가 된 것이다.

영캠프는 두 번의 개최 만에 대학생 전법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불교가 청년의 언어와 포맷으로 다가가면, 대학생들 스스로 '전법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는 동국대 뿐만 아닌 다른 대학과 종단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대학생 전법 열기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는 종단 포교부 등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협조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 영캠프가 '대학생·청년 전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불자 교육의 새 희망 디지털불교대학

'지역 소멸' 현상은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 사찰 불교대학은 인구 감소와 신도 고령화, 교통 불편이 겹치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학생이 줄다 보니 교수사를 모시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66개 불교대학 가운데 43곳이 휴교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부가 운영하는 디지털불교대학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포불교대학을 비롯해 진불선원, 청평사 등 여러 사찰이 디지털불교대학 콘텐츠를 활용해 신도 교육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불교를 배우는 한편,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과 수행·봉사로 신행 공동체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불교 교육이 디지털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수사 확보의 어려움, 교통 문제 등 지역 사찰이 안고 있던 숙제를 해결하면서도 수강생 만족도와 참여율은 오히려 높였다. 나주 불회사가 올해 새롭게 개강을 준비하고 있듯, 디지털불교대학은 더 많은 사찰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법과 교육은 불교의 생명이다. 디지털불교대학이 사찰 불교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법·교육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2025 신상출시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 특판 보급가 |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 **고흥석** 원석 : 약 13.1kg
- **오 석** 원석 : 약 14.1kg
- 크기 : 헤드 지름 16cm×받침 지름 26cm×높이 27cm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